



조선 **왕** 들은

어떤 **춤** 을

즐겼을까?

혜경궁 홍씨
환갑잔치에서
나오는

14가지 춤

episode #3

진찬 춤 #1-4

헌선도 獻仙桃

몽금척 夢金尺

수명명하황은 受明命荷皇恩

포구락 拋毬樂

무고 舞鼓

아박 牙拍

향발 響鉢

학무 鶴舞

연화대 蓮花臺

수연장 壽延長

처용무 處容舞

침수무 尖袖舞

검무 劍舞

선유락 船遊樂

1

헌선도 獻仙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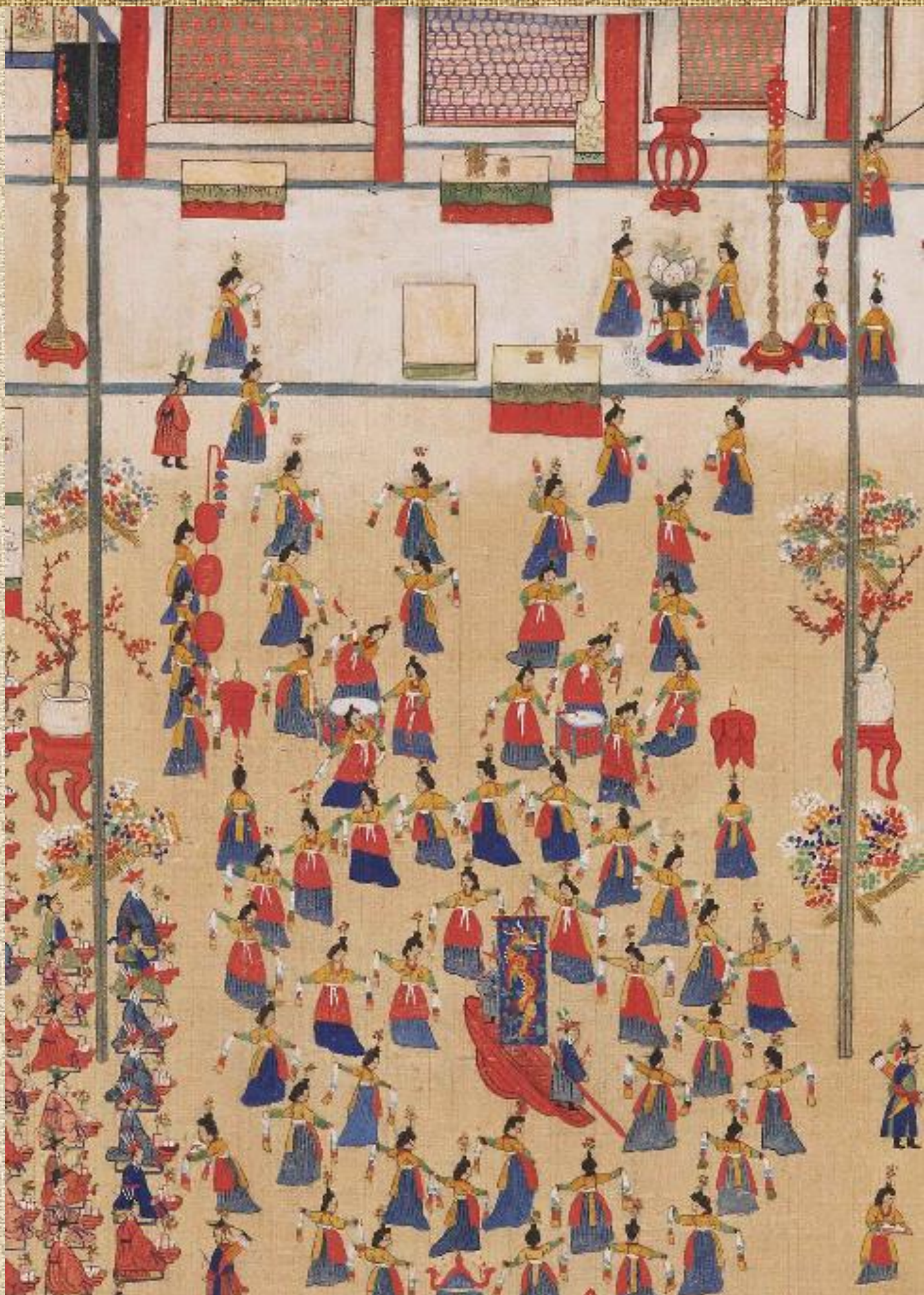
혜경궁 홍씨 환갑잔치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혜경궁 홍씨 환갑잔치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혜경궁 홍씨 환갑잔치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봉수당진찬

원행정리의궐도, 1795



봉수당진찬, 헌선도

원행정리의궐도, 1795



헌선도

원행정리의궤도, 1795

獻仙桃
헌선도



헌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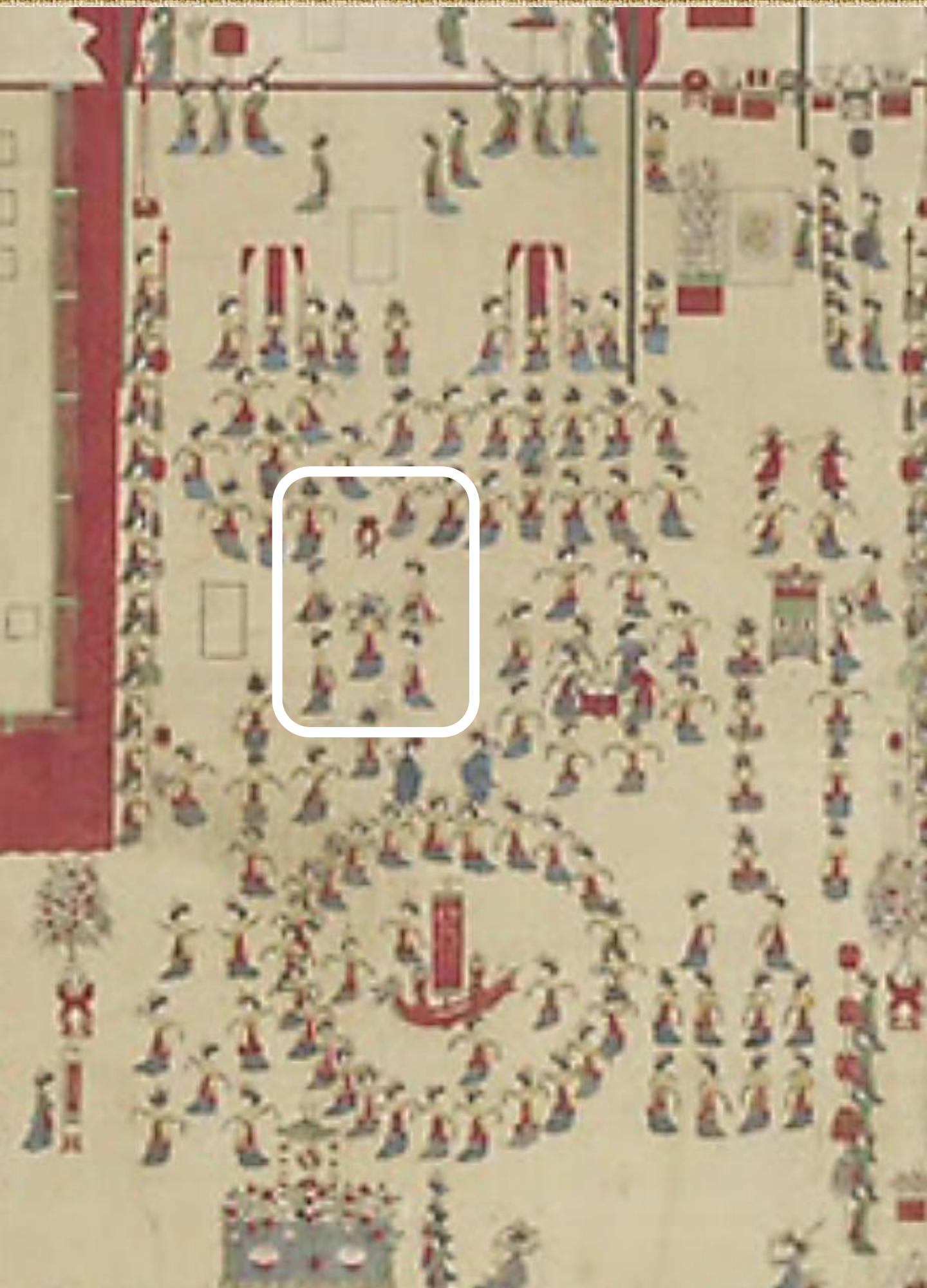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獻仙桃



헌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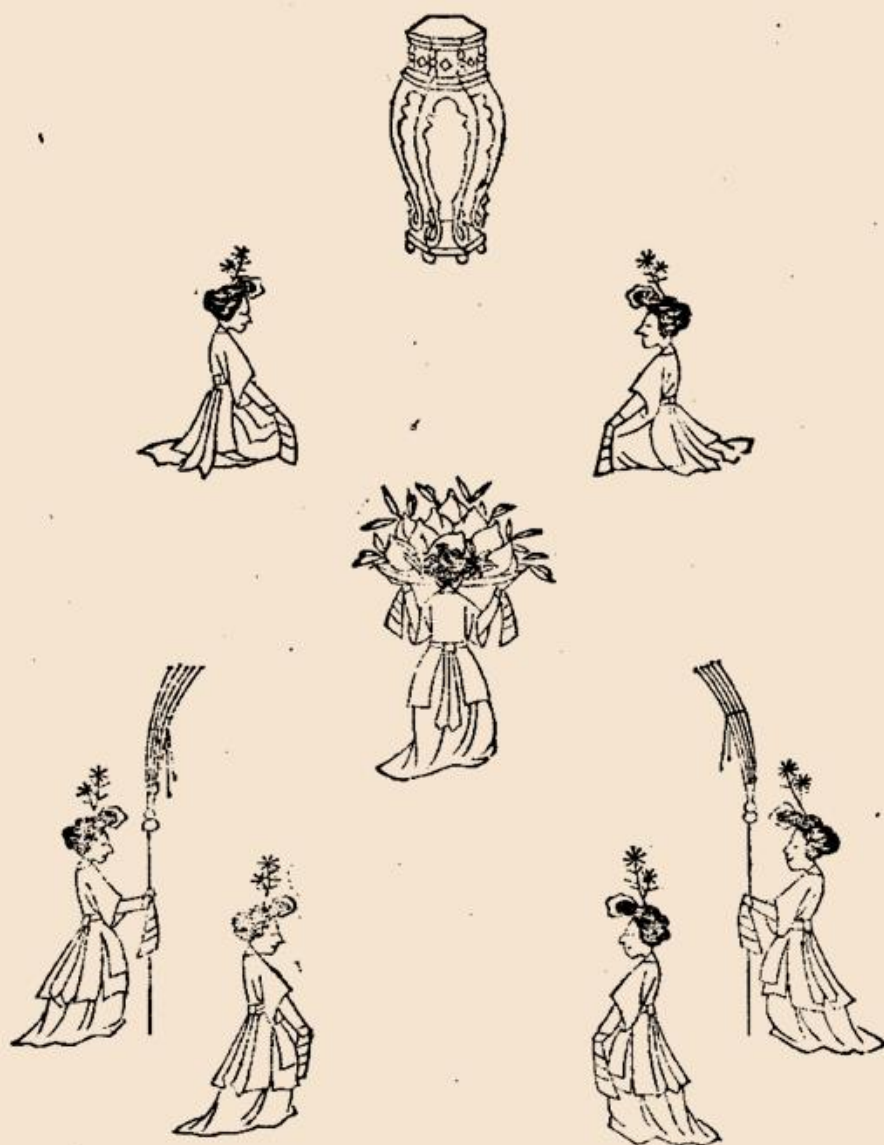
순조기축진찬도병, 1829



헌선도

순조기축진찬의궤, 1829

獻仙桃



헌선도

헌종무신진찬도병, 1848



헌선도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헌선도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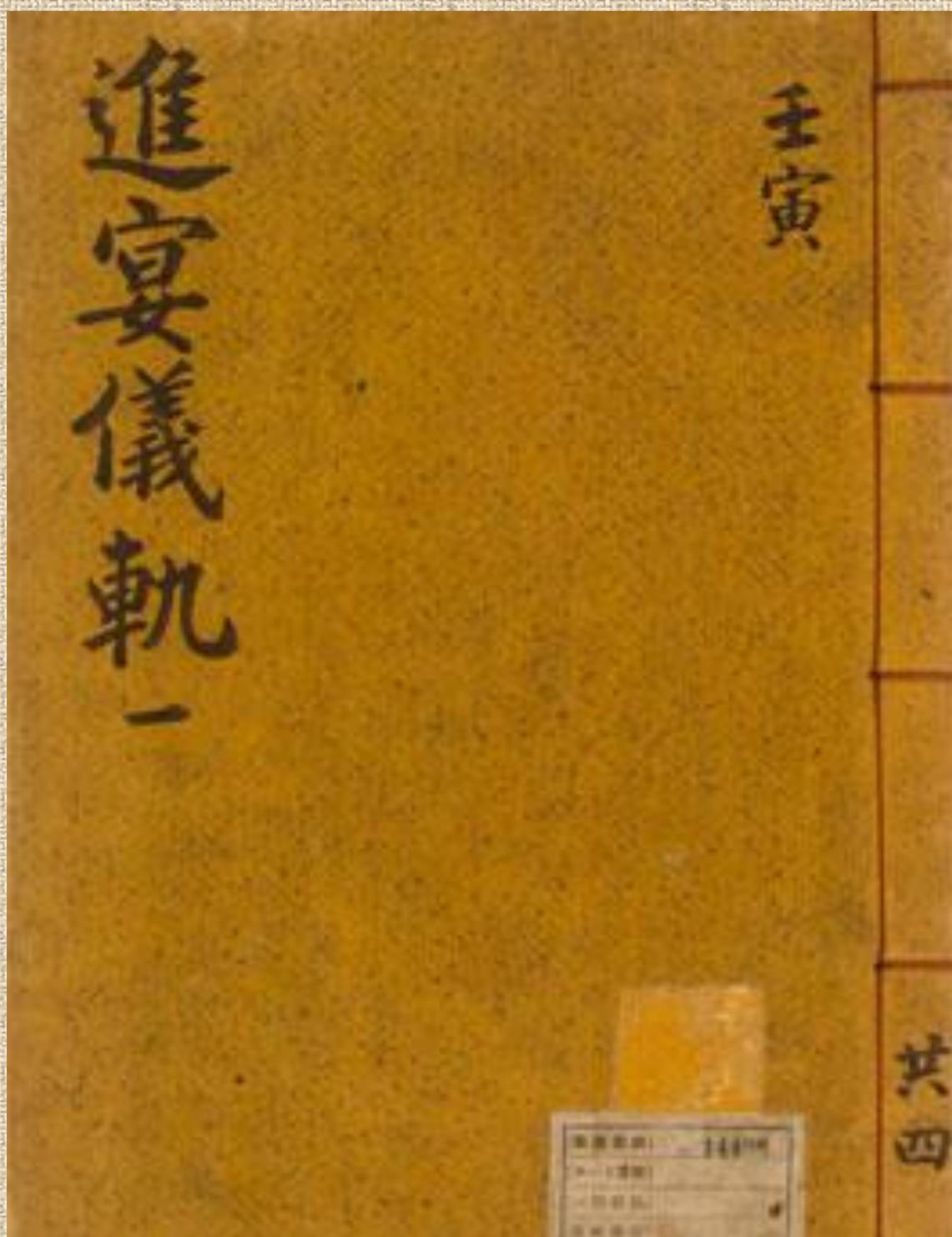
헌선도 獻仙桃

獻 드릴 헌
仙 신선 선
桃 복숭아 도

**왕의
무병장수를
빈다**

고종임인진연의궤

高宗壬寅進宴儀軌, 1902



헌선도 獻仙桃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依于幽斯依。肇造丕基。今我始祖。慶興是宅。慶興是宅。
肇開鴻業。各隊并唱狄人與處。狄人于侵。岐山之遷。實是天心。
野人與處。野人不禮。德源之徙。實是天啓。千世默定。漢水
之陽。累仁開國。卜年無疆。子子孫孫。聖神繩繼。敬天勤民。
萬金永世。明四。而王監出。治表邊陲。皇初其時。唱詞
獻仙桃。宋時詞曲。有仇呂宮王母桃之名。麗朝倣作獻仙桃曲。以爲頌
祝之樂。我朝亦用之。桃凡三顆。以木磨成。枝葉以銅鐵爲之。盛
之銀盤。設獻桃卓於前。卓之左右。女妓二人分立相向。一人奉桃盤而
進。一人在東。一人在西。一人在後。并北向舞。又二人奉竹竿子。分立其後。
壬寅冬一樂章
三十
○舞童呈才同。而竹竿子不
呈口號。仙母稱奉仙桃盤。
遜在齋臺來朝。鳳闕奉千年之美實。呈萬禱之休祥。敢冒
宸顏。翌日會酌時。以
銅闌改書進。謹進口號。竹竿子
進口號昌辰嘉會。賞春光。盛事當
年。憶上陽。堯顙喜瞻天。北極舜衣深拱殿中央。翌日會酌時。以
壽曜煌煌天北
極。華樽灑灑殿中央。改書進。歡聲浩蕩。連韶曲。和氣氤氳。帶御香。翌日會酌
時。以歡聲
浩蕩歌騰祝和氣。氲
氲袖拖香。改書進。壯觀太平。何以報蟠桃。一朵獻千祥。獻仙桃
致詞

헌선도 獻仙桃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송나라 때 사곡(詞曲) 중에
선려궁(仙呂宮)
왕모도(王母桃) 라는 곡이
있다.

고려조에 이를 모방하여
헌선도곡(獻仙桃曲)을 만들어
송축(頌祝)하는 음악으로
사용하였는데,
우리 조정에서도 사용하였다.

선려궁 왕모도

仙呂宮 王母桃

구글神도 모른다



仙呂宮王母桃



全部

圖片

地圖

新聞

影片

更多

設定

工具

約有 3,100,000 項結果 (搜尋時間：0.25 秒)

「仙呂宮王母桃」的圖片搜尋結果



→ 更多符合「仙呂宮王母桃」的圖片

檢舉圖片

詞調溯源 - Google 圖書結果

<https://books.google.co.kr/books?isbn=962072951X> - 轉為繁體網頁

夏敬觀 - 1931 - Literary Criticism

六'夷則宮'俗呼'仙呂宮'《南歌子》一名《南柯子》。《金瓶集》載 ... 《天基排笛樂》有《延壽慢》。入'中呂宮'。(即'道宮。')又有《延壽長歌曲子》。入本調。 ... 《王母桃》《宋志》曲破。

中國歷代詞調名辭典（新編本） - 第 580 頁 - Google 圖書結果

<https://books.google.co.kr/books?isbn=986918197X> - 轉為繁體網頁

吳藕汀, 吳小汀 - 2015 - Poetry

《宋史·樂志》屬仙呂宮。《唐宮樂》卷十三：「【千秋子】、【千秋樂】，大曲。玄宗八月十 ... 四垂王母桃宋太宗趙靈製曲破名。原調已佚，見《宋史·樂志》。《宋史·樂志》屬仙呂宮。

美食中国 - Google 圖書結果

<https://books.google.co.kr/books?id=94AIDgAAQBAJ> - 轉為繁體網頁

李鑫 - 2017

沂花与观音菩萨到了瑶池仙宮。王母除了給每位神仙准备几个蟠桃和一瓶仙酒外,还特意准备了精美的宴席。宴席一开始,观音菩萨就把仙酒喝多了。沂花扶着醉倒的 ...

女仙外史 - Google 圖書結果

<https://books.google.co.kr/books?id=tK6gBQAAQBAJ> - 轉為繁體網頁

呂熊, 朔雪寒 - 2014 - Fiction

中國歷代詞調名辭典(新編本)

吳藕汀, 吳小汀

新編本

中國歷代 詞調名辭典

吳藕汀·吳小汀——著

中國歷代詞調名辭典(新編本)

吳藕汀, 吳小汀

勸人第四

再啟諸公，百歲還如電急。高名顯位瞬息爾。泛水輕漚，霎那間、難久立。畫燭當風裏。安能久之。速往茅峰割愛，休名避世。等功成，須有上真相引指。放死求生，施良藥，功無比。千萬記。此個奇方第一。

王母宮食蟠桃第五

方結實累累。翠枝交映，蟠桃顆顆，仙味真香美。遂命雙成，持靈萬割來，耳服一粒，令我延年萬歲。堪笑東方，便啟私心盜餌。使宮中仙伴，遞互相尤殢。無奈雙成，向王母高陳之。遂指方，偷了蟠桃是你。

玉清宮第六

紫雲絳霧，高擁瑤砌。曉光中，無限剖列。肅整天仙隊。又有殊音欲舉，聲還止。朝罷時。亦有清香飄世。玉駕才興，高上真仙盡退。有瓊花如雪，散漫飛空裏。玉女金童，捧丹文、傳仙誨。撫諸仙，早起勞卿過耳。

왕모궁식반도

王母宮食蟠桃

蟠桃

蟠 서릴 반
桃 복숭아 도

김홍도필 군선도 병풍

金弘道筆 群仙圖 屏風

1776, 국보 제139호





仙桃的假設

點擊查看原圖



임하필기 林下筆記

이유원(李裕元 1814-1888)

林下筆記 一

0320
15
1

奎章閣圖書	
部別	分類記號
	圖書番號 4916
	一部冊數 33
	內別番號 1
서울대학교	

共三十三

헌선도

임하필기, 이유원(1814-1888)

此則年少朝官。客於外者。必有作奸冒奪。陷於罪者。
於是其議乃止。

勿稱梨園

英宗三十年。傳曰。梨園之稱。即唐明皇天寶之事也。
非可法也。而美其名。掌樂提調。或稱梨園提舉。其名
不正。此後掌樂院。勿稱梨園。

建宴樂本源

獻仙桃者。用西王母事。以侑樂。亦仙呂調之類。而自
唐流傳于高麗。高麗崔忠獻。令羣妓作蓬萊仙娥來
賀之狀。此類是也。本朝因之。崔滋詩曰。左屯雲間燕
鹿鳴。蟠桃初滴露。香清舊經仙。却渾肌碧。新醉皇恩
半頽頽。風雨那催金結實。乾坤不管玉攢英。偷嘗一

헌선도

임하필기, 이유원(1814-1888)

헌선도(獻仙桃)는 [...]

당나라에서 고려로 흘러

들어왔는데, 고려의

최충헌(崔忠獻)이 여러

기생들로 하여금

봉래산(蓬萊山)의

선아(仙娥)들이 찾아와서

하례를 드리는 모양을 하도록

하여 악장으로 만든 것 [...]

당나라 唐樂 고려 최충헌 개작



역사를 바꾼 인물 · 인물을 키운 역사

칼날 위에 세운 나라 최충헌



고려사 高麗史

1392-1451



1

고려사 악지

高麗史 樂志

志卷第二十四

高麗史七十

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敬修

樂一

夫樂者所以樹風化象功德者也高麗太祖
草創大業而成宗立郊社躬禘祫自後文物
始備而典籍不存未有所考也睿宗朝宋賜
新樂又賜大晟樂恭愍時

太祖皇帝特賜雅樂遂用之于朝廟又雜用

동문선 東文選

서거정 徐居正 등

1478 (성종 9)

東文選卷之一

辭

和歸去來辭

李仁老

歸去來兮陶潛昔歸吾亦歸得隍鹿而何喜失塞
馬而奚悲蛾赴燭而不悟駒過隙而莫追纔握手
而相誓未轉頭而皆非摘殘菊以爲食緝破荷而
爲衣旣得反於何有誰復動於玄微蝸舍雖窄蟻
陣爭奔蛛絲網扇雀羅設門臧穀俱亡荊凡孰存
以神爲馬破瓢爲樽身將老於菟裘樂不減於商
顏遊於物而無忤在所寓以皆安鱗固潛於尺澤

헌선도 치사

동문선 제104권

五色雲間燕鹿鳴
蟠桃初摘露香清
舊經仙劫渾肌碧
新醉皇恩半賴禎
風雨那催金結實
乾坤不管玉攢英
偷當一顆猶千歲
況薦盤中箇箇盈

헌선도 치사

동문선 제104권

오색 구름 사이에
군신이 녹명장을 부르며 잔치하옵는데
반도를 처음 따오니,
이슬이 향기롭고 맑으옵나이다
옛날에 신선의 겹을 지났으므로
온몸이 파랗고
새로 임금의 은혜에 취하니
뺨 한 쪽이 붉었나이다
바람, 비 어찌하여 금빛 결실을
재촉하는가
건곤은 옥 같은 꽃이 꺾임을 관계하지
아니하옵나이다

임하필기 林下筆記

이유원(李裕元 1814-1888)

林下筆記 一

0320
15
1

奎章閣圖書	
部別	分類記號
	圖書番號 4916
	一部冊數 33
	內別番號 1
서울대학교	

共三十三

최자의 시

崔滋 (1188-1260)

오색빛 구름 속에
녹명장을 외우며 잔치를 벌였는데
반도에 듣는 첫 이슬이 향기 맑아라
전날 거친 선갑에 살갗이 온통 푸르는데
새로 취한 황은에 얼굴이 반쯤 붉어라
풍우는 어째서 금빛 결실을 재촉하는고
구슬이 몰린 꽃잎을 건곤은 상관치 않네
한 개만 흠쳐 맛보아도 천 년을 사는데
더구나 쟁반에 가득한 이 탐스러움이라

악학궤범 樂學軌範

1493년(성종 24년)

성현(成俔) 등 편저

樂學軌範

天

헌선도 배열도

악학궤범

樂集軌範卷之四

時用唐樂呈才圖儀

鼓仙桃

初入排列圖

引人仗旌節龍扇旌節鳳扇旌節雀扇旌節尾扇

竹竿子

挾左

王母

竹竿子

挾右

引人仗旌節龍扇旌節鳳扇旌節雀扇旌節尾扇

樂師帥卓子奉舉樂三人

中官宴則凡奉舉女妓爲之後倣此

入置於

殿內小膳卓南而出樂奏會八仙引擊拍奉竹竿子二人足蹈

王母獻桃圖

樂

挾左

仙桃盤

王母

挾右

竹竿子

헌선도 초입배열도

악학궤범

初八排列圖

竹竿子

竹竿子

挾左

王母

挾右

蓋

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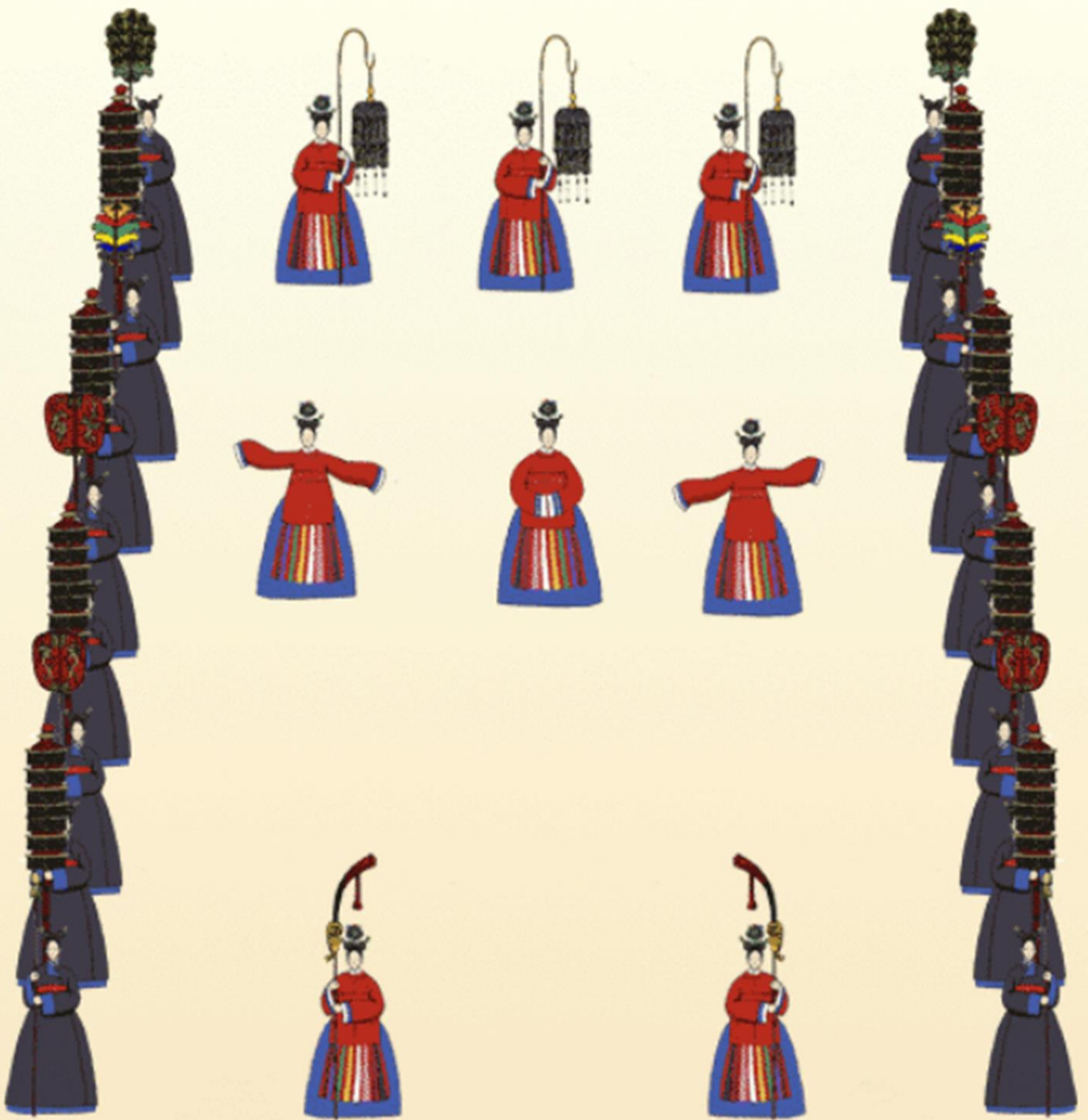
蓋

樂師帥卓子奉舉樂三人中官宴則凡奉舉女妓

引入仗旌節龍扇旌節鳳扇旌節雀扇旌節尾扇

引仗旌節龍扇旌節鳳扇旌節雀扇旌節尾扇

헌선도 초입배열도



헌선도 왕모헌도도

악학궤범

樂學軌範卷之四

時用唐樂呈才圖儀

獻仙桃

初入排列圖

引入仗旌節龍扇旌節鳳扇旌節雀扇旌節尾扇

竹竿子

挾左

王母

蓋

蓋

蓋

仙桃盤

王母

挾右

竹竿子

挾右

引入仗旌節龍扇旌節鳳扇旌節雀扇旌節尾扇

樂師帥卓子奉舉樂三人

權著紗帽角帶他呈才奉舉樂工同中官宴則凡奉舉女妓爲之後倣此

入置於

殿內小膳卓南而出樂奏會八仙子擊拍奉竹竿子二人足蹈

王母獻桃圖

竹竿子

樂
無挾左

竹竿子

헌선도 왕모헌도도



선도 仙桃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복숭아는 모두 3개인데
나무를 다듬어서 만들고
가지와 잎은 구리쇠로
만들어서
은쟁반에 담는다.

선도반 & 선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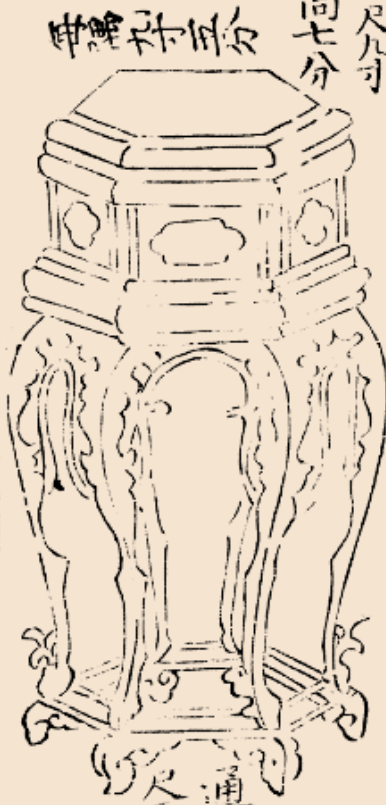
악학궤범

仙施盤附卓



實長六寸枝長一尺九寸
盤徑一尺三寸足高七分

卓子



通是高二
尺五寸六分

仙施實以木爲之凡三箇枝葉並以銅鐵爲之又用銅絲結之
實與枝葉依真著彩盛於葵花銀盤○卓子用卞六面歪足紫
漆

金尺

日徑四分 尺長九寸三分 厚一分半
柄長二寸六分

선도반 & 선도탁

순조기축진찬의궤, 1829

盤桃仙



卓桃仙



헌선도



헌선도



식별 point

선도 복숭아

선도반

선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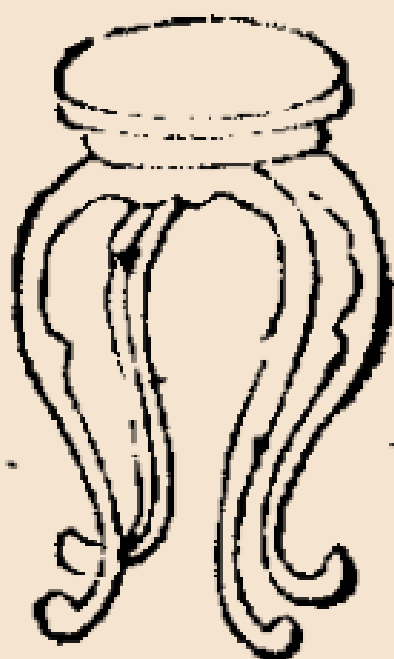
헌선도

원행정리의궤도, 1795



헌선도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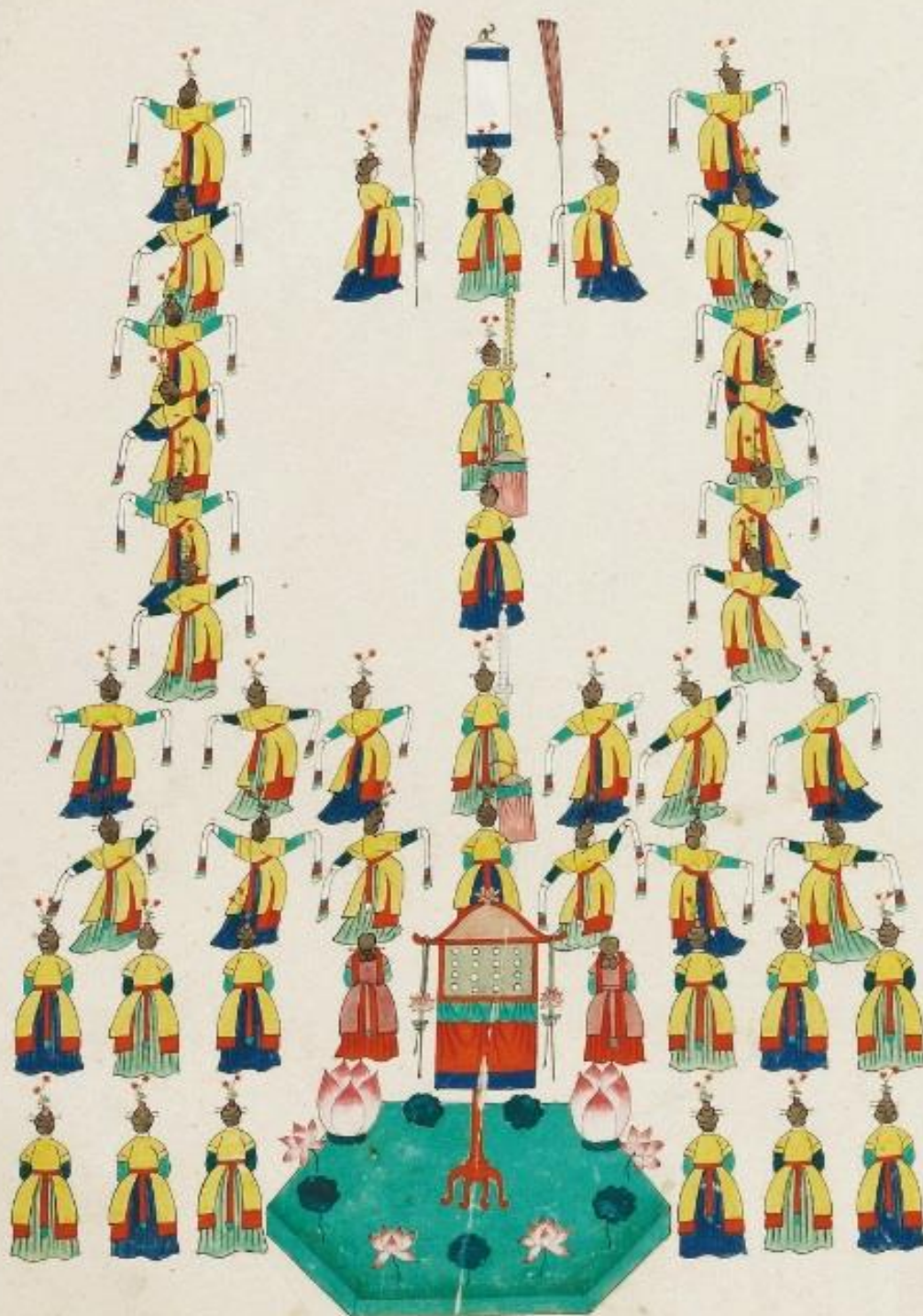
2

몽금척 夢金尺

몽금척

원행정리의궤도, 1795

夢金尺
몽금척



몽금척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夢金尺



몽금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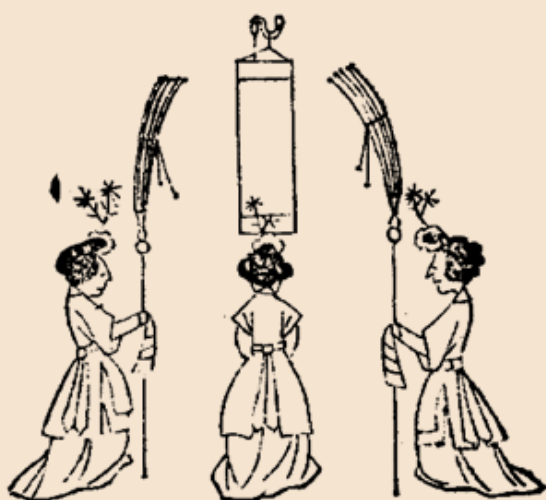
순조기축진찬도병, 1829



몽금척

순조기축진찬의궤, 1829

夢金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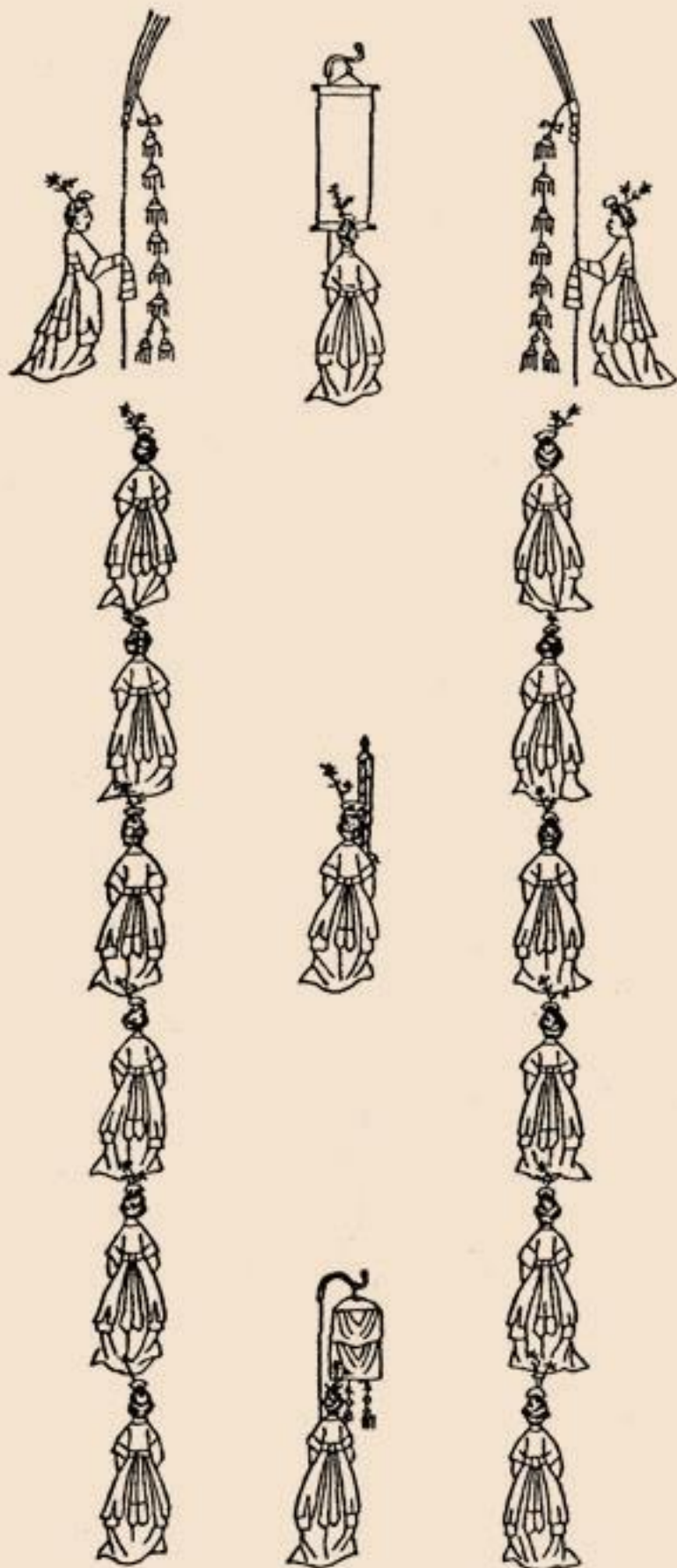
몽금척

헌종무신진찬도병, 1848



몽금척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몽금척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몽금척 夢金尺

몽금척
꿈쇠자
夢金尺

태조 이성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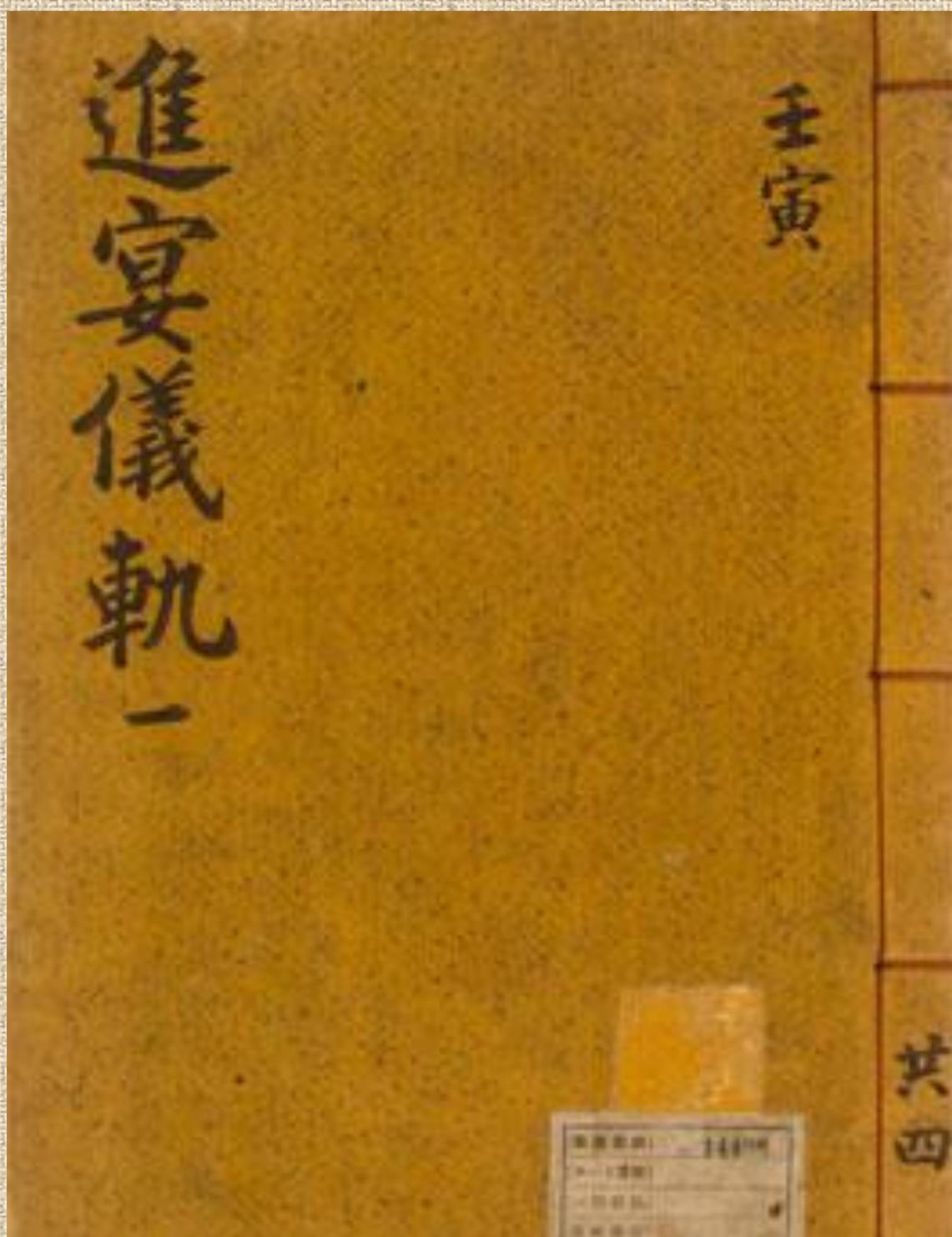
칭송

조선왕조 개국

정당성

고종임인진연의궤

高宗壬寅進宴儀軌, 1902



금척 金尺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進宴儀軌 卷一

時以拜獻
改書進。

皇齡

翌日會酌時以
寶齡改書進。

千萬歲。封人何更祝遐年。

仙母

歛

改書進。

皇居而小退。

皆雲路而言旋。

再拜皆前。相將好去。

竹竿子

金尺

太祖在潛邸時。夢有神人授金尺。

世宗朝做像爲舞。

英祖丙戌進宴時。御製維皇詞聖人詞。尺刻天賜金尺受命之祥八字。又用

生綃作簇子。書維皇詞。上下粧以紅白綾垂流蘇。掛於朱漆竿。○女妓二人

奉竹竿子。一人奉簇子。前進列立。一人奉金尺。一人奉黃蓋。在後序立。十二

人分左右作二行。進退回舞。○舞童呈才

同。而竹竿子不呈口號。仙母稱奉金尺。

奏貞符之靈異。美盛德之形容。其借優容。式乎聖恩。進口號

夢金尺受命之祥也。太祖潛邸。夢受金尺。漢陽開國聖

神休德。于今幾百。於千萬億。

奉金尺
致語

惟皇鑑之孔明兮。吉夢

協于金尺。清者耄矣。今直其戇。繫有德焉。是適。

仙母與各
隊并唱

帝

用度吾心兮。俾均齊于家國。貞哉厥符兮。受命之祥。傳子

及孫兮。彌于千億。

各隊
并唱

聖人有作。萬物皆覩。靈瑞繽紛。諸

福畢至。長言不足。式歌且舞。於樂於倫。君王萬壽。

仙母與
各隊并

三十一

進宴儀軌

卷一

樂章

三十一

금척 金尺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태조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신인(神人)으로부터 금으로
만든 자[金尺]를 받는 꿈을
꾸었다.

세종 때에는 이를 형상하여
춤을 만들었고,

박혁거세 朴赫居世

신라 시조. BC 69-AD 4

재위 BC 57~AD 4





금척리 고분군



금척리 고분군



금척리 고분군





정도전 鄭道傳

1342-1398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유학자



文憲公三峯鄭道傳像

태조 어진

조중묵, 박기준 등. 1872

전주 경기전 소장



태조 어진

1872. 부분



정도전이 몽금척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태조 2년 1393년 7월 26일

之望所以不蒙朝而正大義然祥鳳之於家禽靈芝之於凡草
其生必異常聖人之作靈異之瑞所應先感亦理之必然者也
如武王伐紂曰朕夢協朕卜夢于休祥光武王伏符之瑞事諸
典冊不可誣也哉 主上殿下在潛邸夢見神人奉金尺
曰以此均齊家國又有人得異書以獻之曰欽之勿違夫人後
十數年其言果驗是皆天以今日之事預告之也 殿下以寬
弘之量容受衆言凡閭巷之間微細之民一有不得其所者必
知之知之必加優恤猶恐人之不言開言路也廣矣待功臣以
誠 賜以信書刊諸金石保功臣也至矣前朝之李政廢法壞
經界不正民受其害體舉不興官失其守 殿下皆正而之
之以天道則如彼以人道則如此較功度德無與焉此是宜播
之聲詩被之絃歌傳之閭極俾聞者知 聖德之萬一焉臣雖
不鮮遭遇盛代得與開國功臣之末章以文筆兼大史之職不
勝感激踴躍之至謹獻 受 今之瑞為政之美撰樂詞三篇
寓隨箋以獻 一夢金尺 主上殿下在潛邸夢見神人奉金尺

정도전이 몽금척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태조 2년 1393년 7월 26일

我主上殿下，在潛邸，
夢神人以金尺授之，
若曰："以此均齊家國。

정도전이 몽금척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태조 2년 1393년 7월 26일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잠저(潛邸)에 계실 때에
꿈에 신인(神人)이
금자[金尺]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국가를
정제(整齊) 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정도전이 몽금척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태조 2년 1393년 7월 26일

主上殿下在潛邸，夢見神人，奉金尺自天而來，若曰：“**慶侍中**有清德，且髦矣，**崔三司**有直名，然戇也。”謂殿下資兼文武，有德有識，民望屬焉，乃以金尺授之。”

惟皇鑑之孔明兮，吉夢協于金尺。
清者耄矣兮直其戇，繄有德焉是適。
帝用度吾心兮，俾均齊于家國。
貞哉厥符兮受命之祥，傳子及孫兮彌于千億。

정도전이 몽금척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태조 2년 1393년 7월 26일

“**경시중(慶侍中)**은 깨끗한

덕행은 있으나 또한

늪었으며,

최삼사(崔三司)는 강직한

명성은 있으나 고지식하다.”

하고는 [...]

정도전이 몽금척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태조 2년 1393년 7월 26일

경시중(慶侍中)은

깨끗한 덕행은

있으나

또한 늙었으며

최영 崔瑩

1316-1388

고려말 장군, 정치가

門下侍中鐵原府院君崔公諱瑩之像

後孫大明謹寫



정도전이 몽금척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태조 2년 1393년 7월 26일

최삼사(崔三司)는
강직한 명성은
있으나 고지식하다

정도전이 몽금척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태조 2년 1393년 7월 26일

상제(上帝)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서 국가를 정제(整齊)
하게 했으니,

꼭 맞은 그 증험은
천명(天命)을 받은
상서(祥瑞)입니다.

아들에게 전하여 손자에게
미치니, 천억년(千億年)까지
길이 미치겠습니다.

마이산



몽금척수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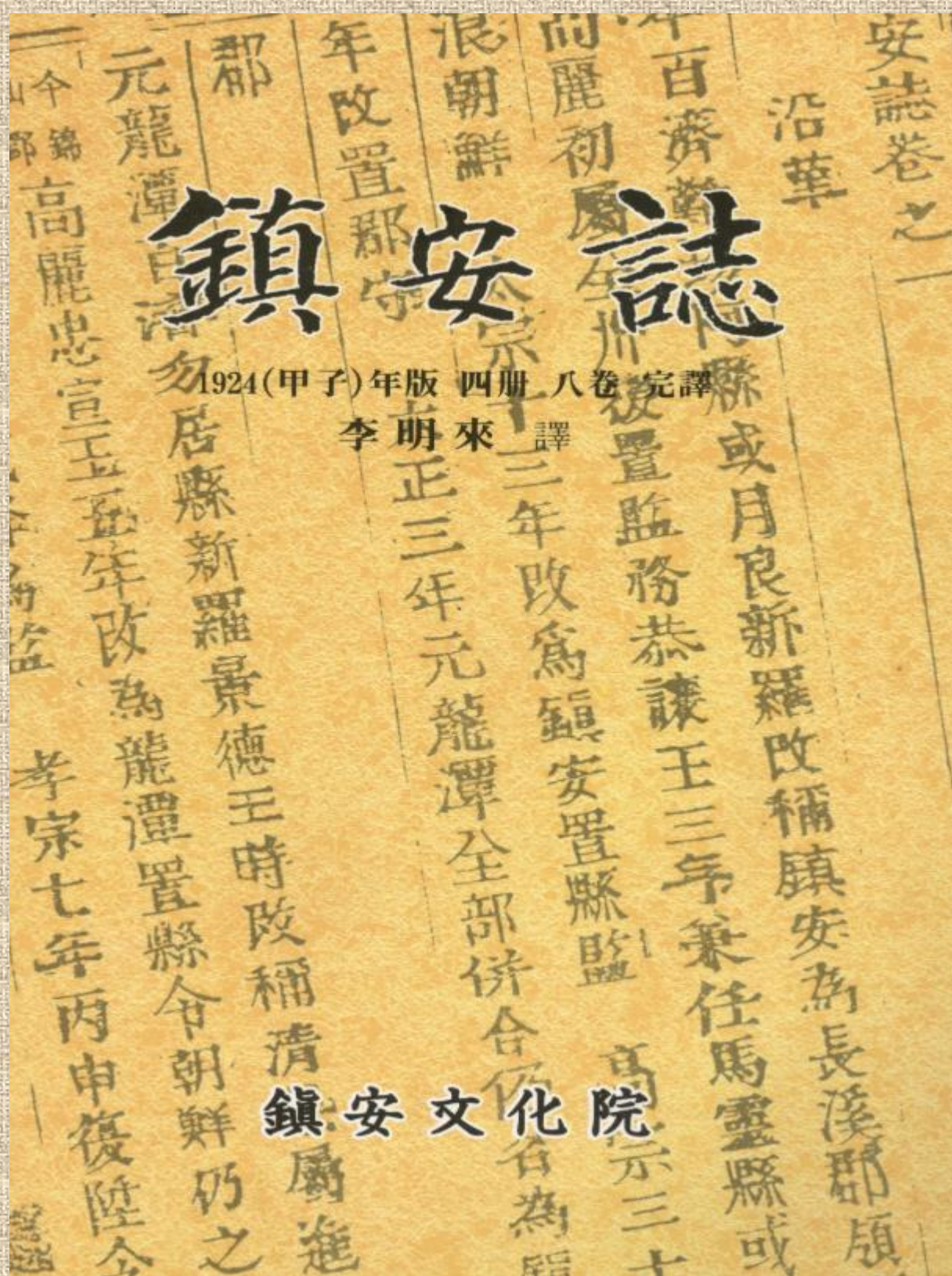
마이산 은수사 태극전



진안지 鎮安誌

1924年版 四冊 八卷 完譯

鎮安鄉校 (李明來 번역)



束金山

束 뭉을 속,약속할 속
金 쇠 금
山 메 산

마이산, 속금산

진안지

그 후(꿈을 꾸 후) 운봉에서
(왜구를) 이기고 완산으로
개선하며 지방을 둘러볼
때에 마이산에 올라 그
석봉을 바라보았다. 빼어난
봉우리를 뭉고 뭉으니 꿈
속에서 보았던 금척과 아주
비슷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속금산이라 하였다.

1393-1402

악장 → 정재

몽금척 배열도

악학궤범

初入排列圖

引仗旌節龍扇旌節鳳扇旌節雀扇旌節尾扇

舞_左舞_左舞_左舞_左舞_左舞_左蓋

竹竿子

簇子

金尺

黃蓋

蓋

竹竿子

舞_右舞_右舞_右舞_右舞_右舞_右蓋

引仗旌節龍扇旌節鳳扇旌節雀扇旌節尾扇

回舞圖

作隊圖

舞_左舞_左竹竿子

舞_左舞_左

舞_左舞_左

簇子

金尺

黃蓋

舞_右舞_右

舞_右舞_右

舞_右舞_右竹竿子

天賜金尺 受命之祥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금자에는

“하늘이 금척을

주었으니 천명을

받는 상서이다.”

라는 여덟 글자가

새겨져 있다.

몽금척 족자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생사 비단으로 족자를
만들어 〈유황사〉를 썼는데,
위아래를 홍색과 백색의
능라비단으로 장식하고
술[流蘇]을 늘어뜨렸는데
붉은 칠을 한 장대에다
걸었다.

금척 & 족자

악학궤범



몽금척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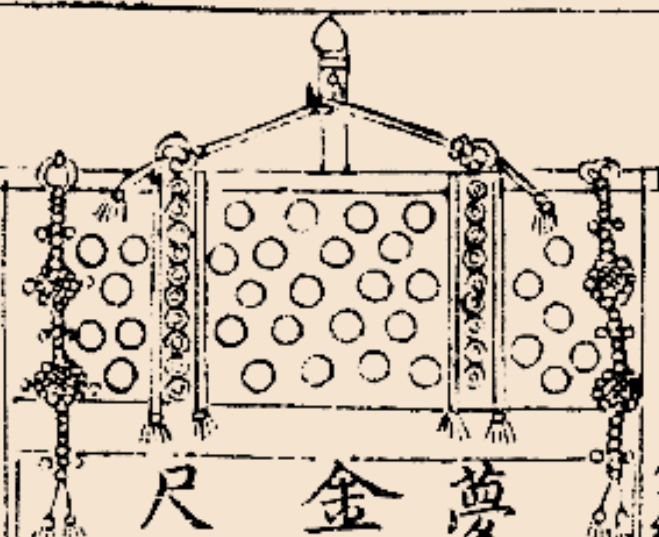
악학궤범

色絲結子

簇子

夢金尺受寶錄觀天庭受明命賀
皇恩賀聖明聖澤等呈才各一

生綃一尺六寸三分



尺金夢

夢金尺

受

命之

祥也

太祖在潛邸

夢見

神人奉金尺自

天而來若曰慶侍中有清德且老矣崔三司有直名

然竊也謂

太祖資無文武有

德有

識民

望屬焉乃以金尺授之惟

皇鑑之孔明兮

吉慶協于金尺清者老矣考直

其慈繫

有德焉是適

帝用度吾

心兮俾

均齊于家國

貞我殿

符兮

受

命之

祥傳子及

孫兮彌于千億

紅綾七寸二分白綾二寸四分

廣九寸四分並布帛尺

白綾寸三分

軸徑七分

紅綾寸六分

簇子用生綃上下以紅白綾連粧

紅綾印金花紋

邊兒用紫綃後稍用



몽금척족자

악학궤범

夢金尺受命之祥也

太祖在潛邸夢見神人奉金尺自天而來若曰
慶侍中有清德且耆矣崔三司有直名然□也

謂太祖資兼文武有德有識民望屬焉

乃以金尺授之惟皇鑑之孔明兮

吉夢協于金尺

清者耄矣兮直其鰲繫有德焉是適

帝用度吾心兮俾均齊于家國

貞哉厥符兮受命之祥傳子及孫兮彌于千億

몽금척족자

악학궤범

夢金尺 受命之祥也

太祖在潛邸 夢見神人奉金尺

自天而來 若曰 慶侍中有清德且耆矣

崔三司有直名然也 謂太祖資兼文武

有德有識 民望屬焉 乃以金尺授之

惟皇鑑之孔明兮

古夢協于金尺

清者耄矣兮直其戇 繄有德焉是適

帝用度吾心兮 俾均齊于家國

貞哉厥符兮受命之祥

傳子及孫兮彌于千億

몽금척족자

악학궤범

금척을 꿈 꾸는 것은 천명을 받으려는 상서입니다.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 꿈에 신인이 금척을 받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말하기를

‘경시중은 맑은 덕망이 있으나 늙었고, 최삼사는 정직한 명망이 있으나 어리석다.’ 하면서 태조에게 ‘문무를 겸비하고 덕망도 지식도 있어 백성들의 중망이 귀속한다.’ 하며 금척을 주었습니다.

상제(上帝)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서 국가를 정제(整齊) 하게 했으니, 꼭 맞은 그 증험은 천명(天命)을 받은 상서(祥瑞)입니다. 아들에게 전하여 손자에게 미치니, 천억년(千億年)까지 길이 미치겠습니다.

금척 & 족자

순조기축진찬의궤, 1829

金 尺



金 尺 穗

夢 金 尺 簇 子



荷皇恩簇子同

劍 器



몽금척



번암 채제공

樊巖 蔡濟恭

1720-1799



번암집 樊巖集

채제공 (1720-1799)

樊巖集

卷首

樊
3428
559
0

奎章閣圖書	
分類記號	
圖書登錄	4133
一冊冊數	27
西曆年號	1
서울대학교	

吳
廿七

번암집 樊巖集

채제공 (1720-1799)

尺五頒新尺

珍應十襲重

有躔皆合度

提寸詎撞鍾

明主賢材較

良工朽杞容

猗歟聖祖夢

歌協御天龍

번암집 樊巖集

채제공 (1720-1799)

오 자 길이 새 자를 내려 주시니
열 겹으로 싸고 쌀 보물이로세
눈금 모두 도수에 들어맞지만
짧은 막대로 종을 어이 치리까
명군은 어진 인재 발탁해 내고
양공은 썩은 재목 수용하는 법
거룩하다 성조의 금칙 받은 꿈
〈용비어천〉 노래로 화답했다네

식별 point

금척

몽금척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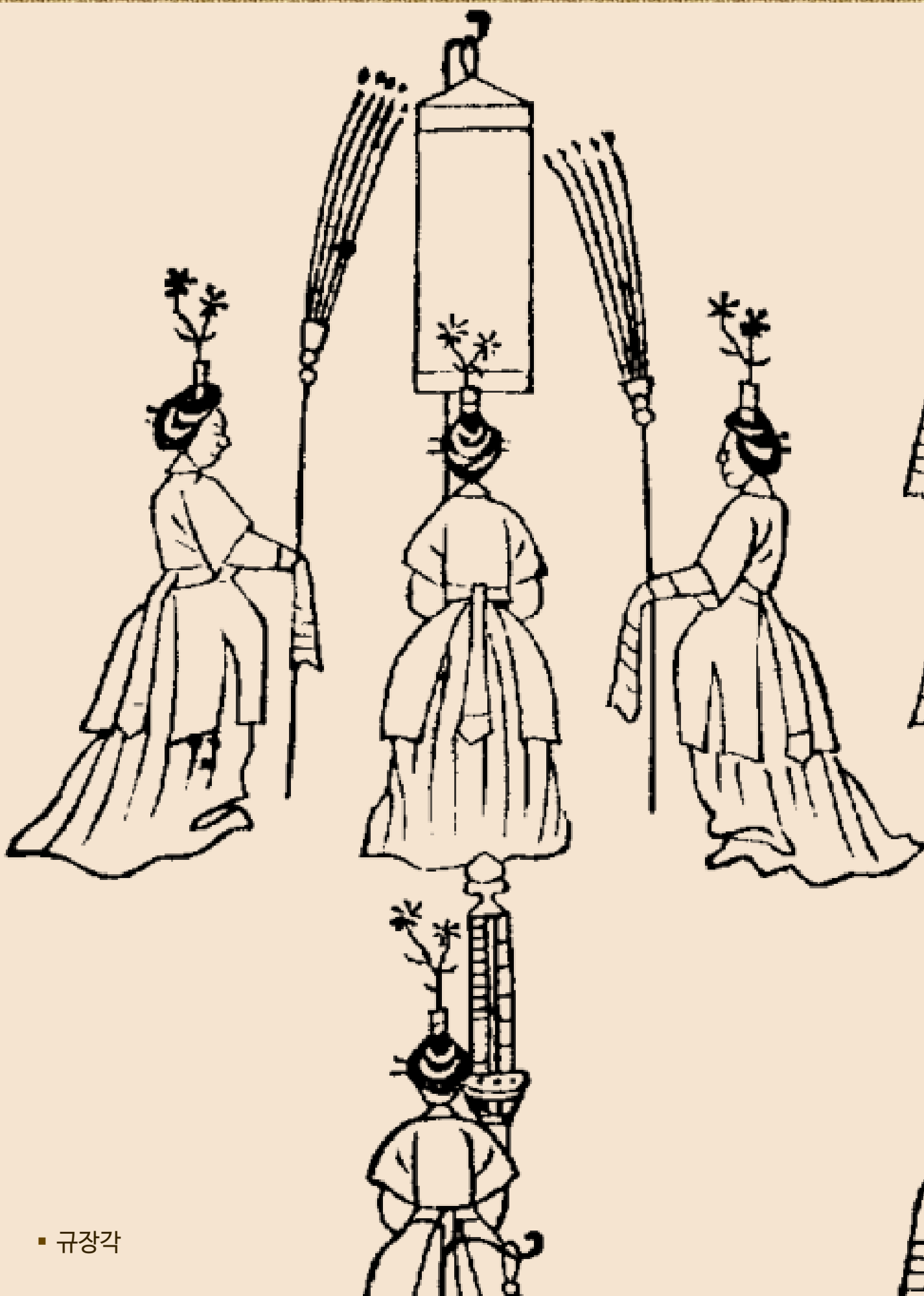
몽금척

원행정리의궤도, 1795



몽금척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3

수명명하황은

受明命荷皇恩

하황은

원행정리의궐도, 1795

荷皇恩
하황은



하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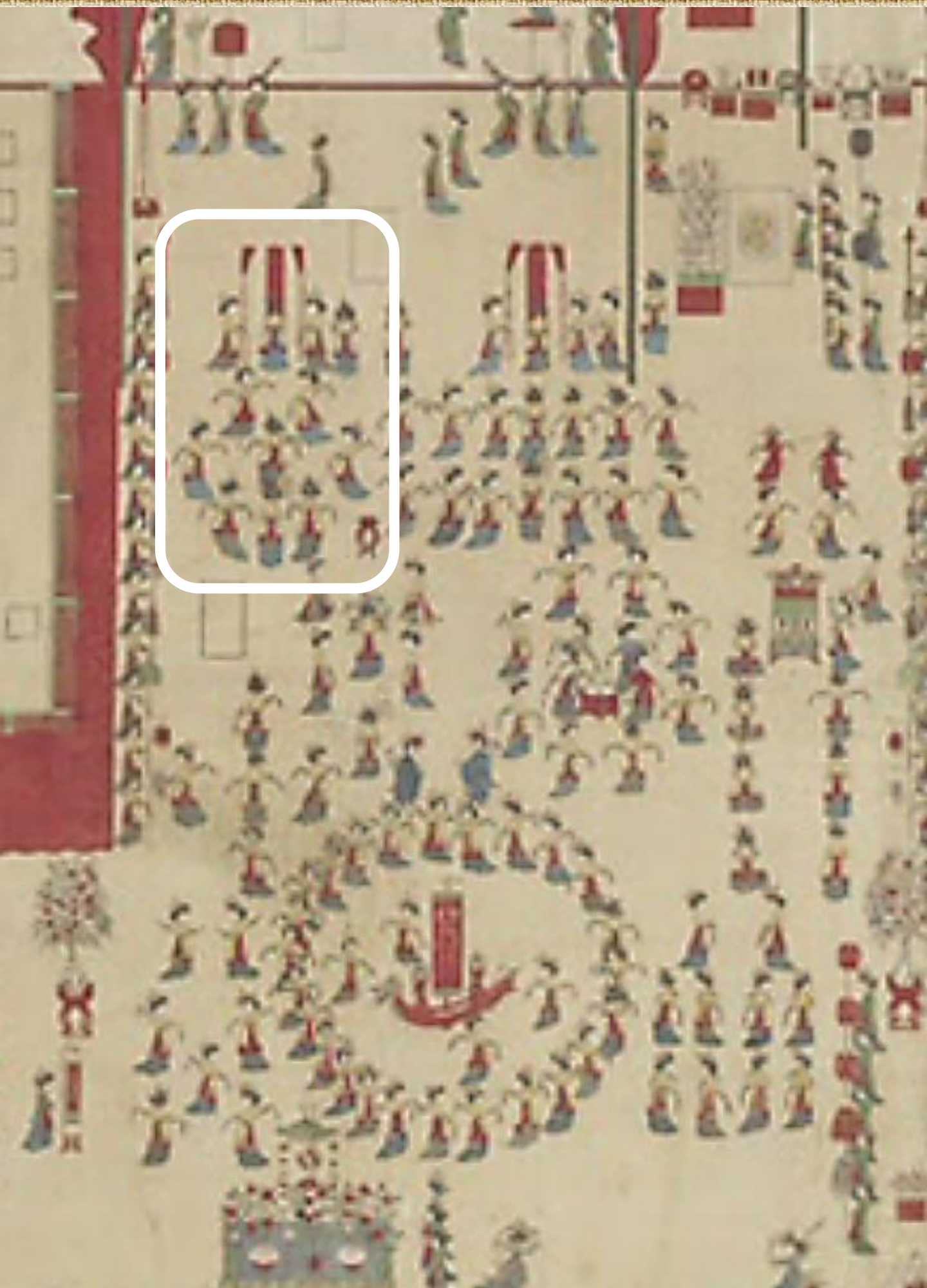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荷皇恩



하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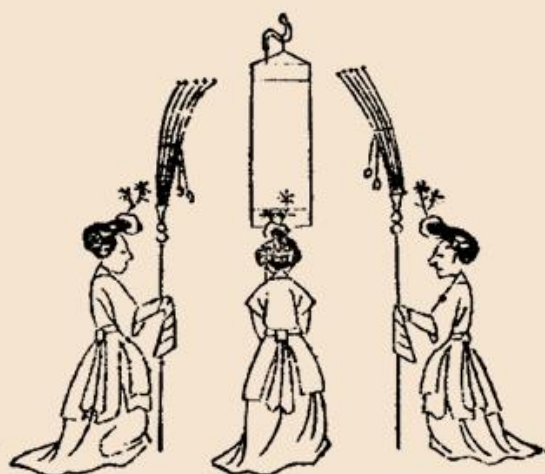
순조기축진찬도병, 1829



하황은

순조기축진찬의궤, 1829

荷皇恩



하황은

헌종무신진찬도병, 1848



수명명하황은
受明命荷皇恩

受	받을	수	
明	밝을	명	
命	명령	명	
荷	은혜	입을	하
皇	황제	황	
恩	은혜	은	

하늘의 밝은 명을 받고 황제의 은혜를 입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19년

覺御衣之沾濕夕次維興宅顧謂侍臣曰今日之雨軍兵沾濕單閼此行至盛
舉也是禮大儀節也事事不必求十分圓滿乍雨旋晴以清蹕路庸何傷乎況
田事將始唯睦富潤豈非農夫之慶耶○癸巳謁華城聖廟賜新印四書三經
及誠獲○試士于于華觀試武于洛南軒仍臨軒習第文取崔之聖等五人武
取金寬等五十六人○甲午 上陪 惠慶宮詰 願隆園行展拜禮還御華
城西軒臺間城操夜操下御製五言四韻律命諸臣賡進者曰華城城役之決
意築斯其費不煩於經用昨冬以役之亦欲姑徐而鳩財復始者皆自以為稱
錫中出來而今行見南北城樓水閣將臺等處輦飛輪輿雉燕嶢嶢豈特三輔
開防之重稍待事功之告竣豈碑記其實列書美功諸人姓名以為萬年不朽
之資○乙未御奉壽堂進饌于 惠慶宮前一日尚寢帥其屬設 慈宮座於
行宮內殿北壁南向甲案於座東香案二於前楹左右設御座於 慈宮座東
拜位於階上北向稱位於殿內當中北向與贊設內外命婦特位於前楹簾內
北上相向拜位於殿前左右外位於庭中俱北向相對又設儀賓或臣侍位於
前楹簾外左右北上相向拜位於殿前左右北上相對與儀設陪從百官宣佩
位於中陽門外東西北上相向拜位於道之西北北向相對引儀設儀賓或臣外

중국 황제를

칭송

3.1

수명명 受明命

임하필기 林下筆記

이유원(李裕元 1814-1888)

林下筆記 一

0320
15
1

奎章閣圖書	
部別	分類記號
	圖書番號 4916
	一部冊數 33
	內別番號 1
서울대학교	

共三十三

수명명

임하필기, 이유원(1814-1888)

也。宋孝宗集三曰。批毛集蓮花臺本出。批路魏用二
抹女童。鮮衣帽。施金鈴。折轉有聲。其來也。於二蓮花中
坼藏之花。折而後見。此蓋因花神踏歌。採蓮曲之類。而
為之也。金尺。一曰夢金尺。受命之祥也。太祖在潜邸。
夢見神人。奉金尺。自天而來。若曰。慶侍中。有清德。且
老矣。崔三司。有直名。然慙也。謂太祖。資無文武。有德
有識。民望屬焉。乃以金尺授之。大隊十二人。隨樂節。
唱金尺詞。受寶籙。得異書也。太祖在潜邸。有人得異
書於智異山石壁中。以獻。後至歲壬申。其言乃驗。你
受寶籙。覲天庭。太宗以潜邸入覲天庭。蒙被帝眷。禮
而遣還。國之老幼。懽忻慶忭。相與歌之。受明命者。
太宗。事大以禮。天子錫明命。從以印章冕服。國之大

수명명

임하필기, 이유원(1814-1888)

수명명(受明命)은, 태종이
예의로 대국을 섬겼는데
천자가 명명(明命 위에서
내리는 밝은 명령)을 내리고
아울러 인장(印章)과
면복(冕服)을 보내왔으므로
나라의 대부(大夫)와
사자(士子)들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서로 함께
어울려서 부른 노래이다.

태종 상상화



수명명사詞

豐豐我王 德明敬止
孝友施政 令望不已
翼翼乃心 事大惟一
奉揚聲教 漸于出日
帝錫明命 金印斯煌
又何錫之 袞衣九章
王拜受命 天子聖明
臣民相慶 宗祀與榮
於樂我王 荷天之休
體仁保民 壽考千秋
於樂我王 如日之昇
貽謀克正 萬世其承

수명명 사 詞

부지런하신 우리 임금
덕을 밝혀 공경에 머무시고
효우로 다스리시니
훌륭한 명망 그치지 않네
그 마음 조심하여
한결같이 사대하니
성교를 선양하여
해 돋는 나라에 미치게 했네
황제가 밝은 명을 내시니
금인이 찬란하도다
또 무엇을 내리셨는가
구장의 곤의로다

수명명 사 詞

임금이 절하고 명을 받으니
천자가 성명하도다
신민이 서로 경축하니
종사에도 영광이라
아 화락한 우리 임금이여
하늘의 도를 받드시어
인을 체득하사 백성을
보호하시니
천년토록 오래 사시리
아 화락한 임금이여
해가 솟듯이 밝으셔서
바른 법을 남기셨으니
만세토록 이르리

수명명 악학궤범

右挾二人舞進挾手擊拍歛手足蹈擊拍舞退退手樂止

受明命

初入排列圖

夜公節龍扇旌節鳳扇旌節雀扇旌節尾扇

竹竿子

挾左一挾左二挾左三挾左四

蓋

簏子

仙母

蓋

竹竿子

挾右一挾右二挾右三挾右四

蓋

引仗旌節龍扇旌節鳳扇旌節雀扇旌節尾扇

樂奏會八仙子擊拍奏簏子一人奉竹竿子二人齊行足蹈

進而立樂止口號

翼翼小心誼受維新之命洋洋盈耳訖擊拍

奏前樂奉竹竿子二人足蹈擊拍而退左右分立簏子仍立擊拍仙

回舞圖

簏子

仙母

竹竿子

竹竿子

식별 point

족자가 있고
금척이 없다

3.2

하황은 荷皇恩

임하필기 林下筆記

이유원(李裕元 1814-1888)

林下筆記 一

0320
15
1

奎章閣圖書	
部別	分類記號
	圖書番號 4916
	一部冊數 33
	內別番號 1
서울대학교	

共三十三

하황은

임하필기, 이유원(1814-1888)

夫士。懽忻感激。相與歌之也。荷皇恩。受錫命也。太宗。
以父王之命。權攝國事。尋受皇帝誥命。國人懽忻。作
荷皇恩。賀聖明。歌瑞應也。皇帝御極以來。宇內寧謐。
祥瑞荐臻。吾東方之人。懽忻舞蹈。作是詩。歌詠瑞應。
以致頌禱之意焉。聖澤。慰朝廷使臣也。慰使臣。所以
欽上德也。太宗。事大以誠。帝用嘉之。特遣使臣。國人
懽忻。作是歌焉。

內宴諸臣賦詩

世祖十一年。內宴諸臣。令各賦一詩。成任。附耳語李
芮曰。上嘗謂君迂拙。君試賦大言。芮遂作詩曰。歌詠
聖德。欲起舞。天風吹袖助回旋。上覽詩。大笑曰。誰謂
芮迂拙。遂命歌妓。以此詩。作升歌之曲。上嘗召李石

하황은

임하필기, 이유원(1814-1888)

하황은(荷皇恩)은 천자의
석명(錫命)을 받은 것을
노래한 것이다. 태종이 부왕의
명으로 국사(國事)를 잠시
대리하고 있었는데 곧 황제의
고명(誥命)을 받게
되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황은을
짓게 된 것이다.

상왕이 변계량에게 하황은곡을 짓게 하다

세종 1년 1419년 1월 8일



상왕이 변계량에게 하황은곡을 짓게 하다

세종 1년 1419년 1월 8일

上王命卞季良，
撰《賀皇恩曲》，
將以宴使臣也

상왕이 변계량에게 하황은곡을 짓게 하다

세종 1년 1419년 1월 8일

상왕은 변계량에게 명하여,
《하황은곡(賀皇恩曲)》을
짓게 하였는데,
장차 사신을 대접하는
자리에 쓰자는 것이었다.

하황은 서문

세종실록 1419년 1월 8일

賀皇恩，受錫命也。殿下以
父王之命，權攝國事，尋受皇
帝誥命，國人懼，作賀皇
恩也。

하황은 서문

세종실록 1419년 1월 8일

하황은은 석명(錫命)을
받은 때문이라, 전하께서
부왕의 명령을 받들어
국사를 임시 통치하시다가,
이윽고 황제의 고명을
받았삽기로,
나라 사람들이 즐거움에
넘치어 하황은을 지었다.

하황은 가사

赫赫始祖，造我東方。傳子及孫，世有哲王。金玉其相，天賦聰明。既孝且悌，既仁且誠。緝熙聖學，惟日亶亶。明昭父王，允也知子。廼倦于勤，廼托國事。皇帝曰俞，錫是明命。王拜稽首，皇帝神聖。皇帝神聖，恩溢朝鮮。小大舞蹈，感極天淵。綿綿宗社，彌萬億年。

조선왕조실록

국역 인터넷판

朝鮮王朝實錄

조선왕조실록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조선왕조실록 ▼

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기검색어 이순신 산학 전사민 한온 박혁거세 정소공주 神主 세종 돼지 측우기

- | | | | |
|-----------------|-------------------|----------------------|------------------|
| · 1대 태조(1392년~) | · 9대 성종(1469년~) | · 15대 광해군중초본(1608년~) | · 20대 경종(1721년~) |
| · 2대 정종(1399년~) | · 10대 연산군(1494년~) | · 광해군정초본(1608년~) | · 경종수정본(1721년~) |
| · 3대 태종(1401년~) | · 11대 중종(1506년~) | · 16대 인조(1623년~) | · 21대 영조(1724년~) |
| · 4대 세종(1418년~) | · 12대 인종(1545년~) | · 17대 효종(1649년~) | · 22대 정조(1776년~) |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1월 8일 계축 3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상왕이 변계량에게 하황은곡을 짓게 하다

국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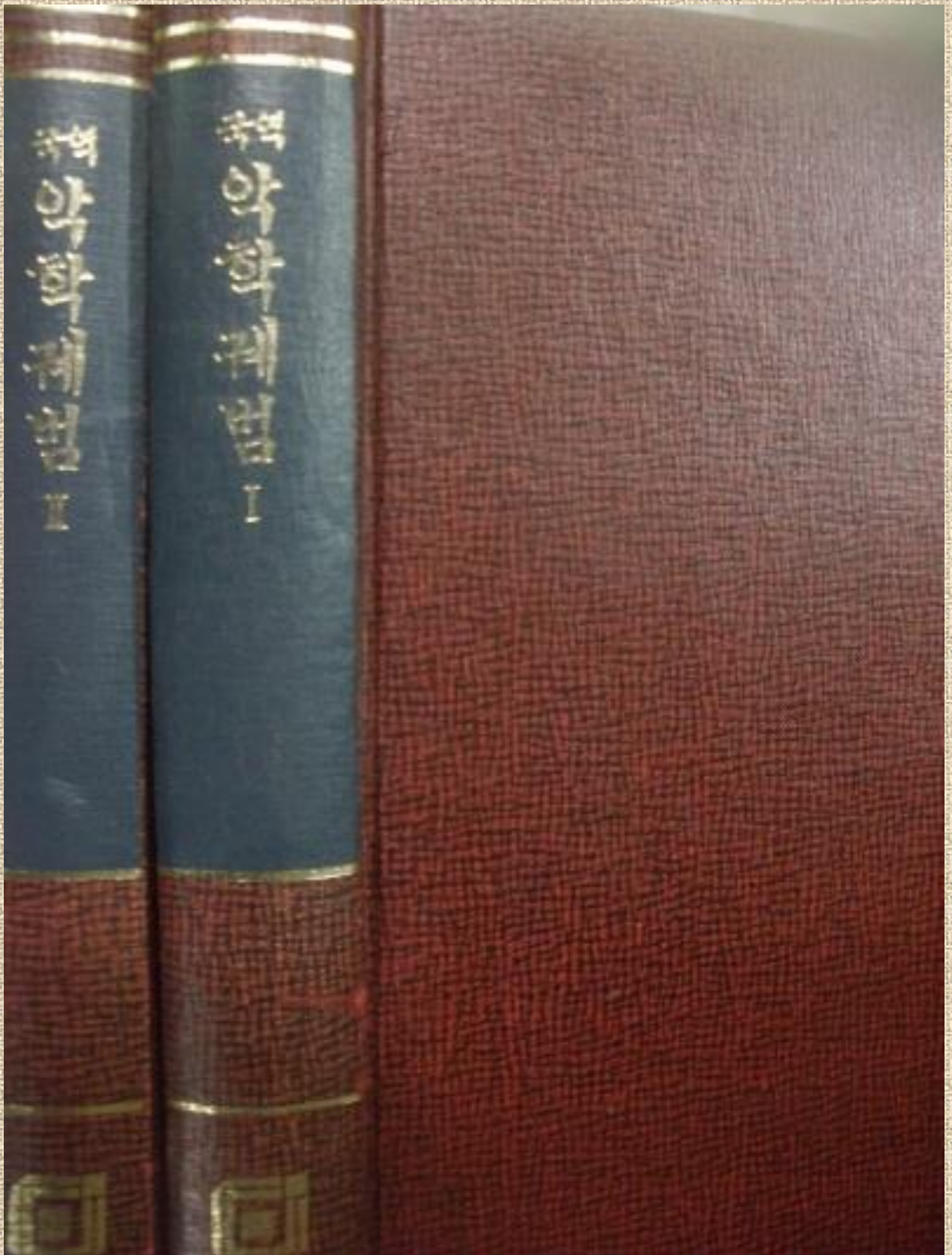
"거룩하신 우리 시조, 우리 동방 이루시니, 대를 이을 아들 손자, 명철하신 임금일레. 금옥같은 그 모습에 타고 나신 총명이라. 효도하고 공순하며, 어질고 진실하며, 학문을 널리하여, 날로 더욱 독실하니, 밝고 밝은 부왕께서, 아드님을 아는지라, 근면에 힘이 겨워, 나라 일을 맡기셨네. 황제 폐하 옳다시고, 밝은 명령 내리시니, 머리 숙여 임금은 절하며, 신성하신 황제시여, 신성하신 황제시여, 조선에 은혜 넘쳐, 모두 다 춤을 추며, 그지없이 감격하네. 종묘 사직 이어 이어, 억만년을 누리소서."라 하였다.

문

赫赫始祖, 造我東方。傳子及孫, 世有哲王。金玉其相, 天賦聰明。既孝且悌, 既仁且誠。緝熙聖學, 惟日亶亶。明昭父王, 允也知子。迺倦于勤, 迺托國事。皇帝日俞, 錫是明命。王拜稽首, 皇帝神聖。皇帝神聖, 恩溢朝鮮。小大舞蹈, 感極天淵。綿綿宗社, 彌萬億年。

■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101008_003

국역 악학궤범



가사 詞曰

하황은 受明命

赫赫始祖, 造我東方。

조선왕조실록

- 거룩하신 우리 시조,
우리 동방 이루시니,

국역악학궤범

- 혁혁하신 시조께서
우리 나라를 세우시어

가사 詞曰

하황은 受明命

傳子及孫, 世有哲王。

조선왕조실록

- 대를 이을 아들 손자,
명철하신 임금일레.

국역 악학궤범

- 자손에게 전하시니
대대로 철왕이 나셨도다.

가사 詞曰

조선왕조실록 번역본

거룩하신 우리 시조,
우리 동방 이루시니,
대를 이을 아들 손자,
명철하신 임금일레.
금옥같은 그 모습에
타고 나신 총명이라.

가사 詞曰

조선왕조실록 번역본

효도하고 공순하며,
어질고 진실하며,
학문을 널리하여,
날로 더욱 독실하니,
밝고 밝은 부왕께서,
아드님을 아는지라,
근면에 힘이 겨워,
나라 일을 맡기셨네.

가사 詞曰

조선왕조실록 번역본

황제 폐하 웅다시고,
밝은 명령 내리시니,
머리 숙여 임금은
절하며,
신성하신 황제시여,

가사 詞曰

조선왕조실록 번역본

신성하신 황제시여,
조선에 은혜 넘쳐,
모두 다 춤을 추며,
그지없이 감격하네.
종묘 사직 이어 이어,
억만년을 누리소서

하황은 배열도

악학궤범

荷皇恩

初入排列圖

作降

引衣 簪節 龍扇 簪節 鳳扇 簪節 雀扇 簪節 尾扇

竹竿子

挾左

挾左

挾左

蓋

挾左

挾

簪子

仙母

蓋

北

仙母

竹竿子

挾左

挾左

挾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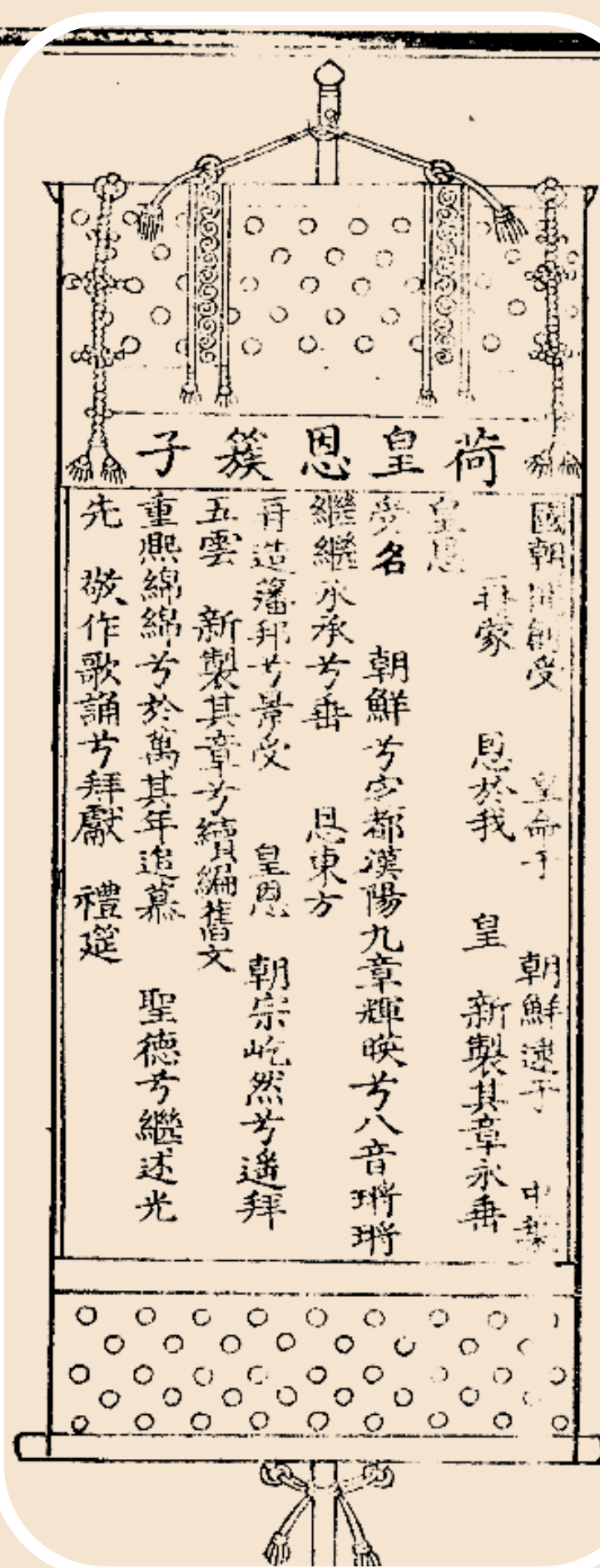
蓋

挾左

挾

引衣 簪節 龍扇 簪節 鳳扇 簪節 雀扇 簪節 尾扇

하황은 족자



하황은족자

광국지경록 光國志慶錄

1744년(영조 27)

御製荷

皇恩三章

國朝開創受

皇命于朝鮮逮于中葉再蒙

恩於我

皇新製其章永垂

皇恩

受名朝鮮兮定都漢陽九章輝映兮八音

하황은



식별 point

하황은 족자
뒤에 금척이 없다

하황은

원행정리의궤도, 1795



하황은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4

포구락 拋毬樂

혜경궁 홍씨 환갑잔치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혜경궁 홍씨 환갑잔치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혜경궁 홍씨 환갑잔치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포구락

원행정리의궐도, 1795

拋毬樂
至子中



포구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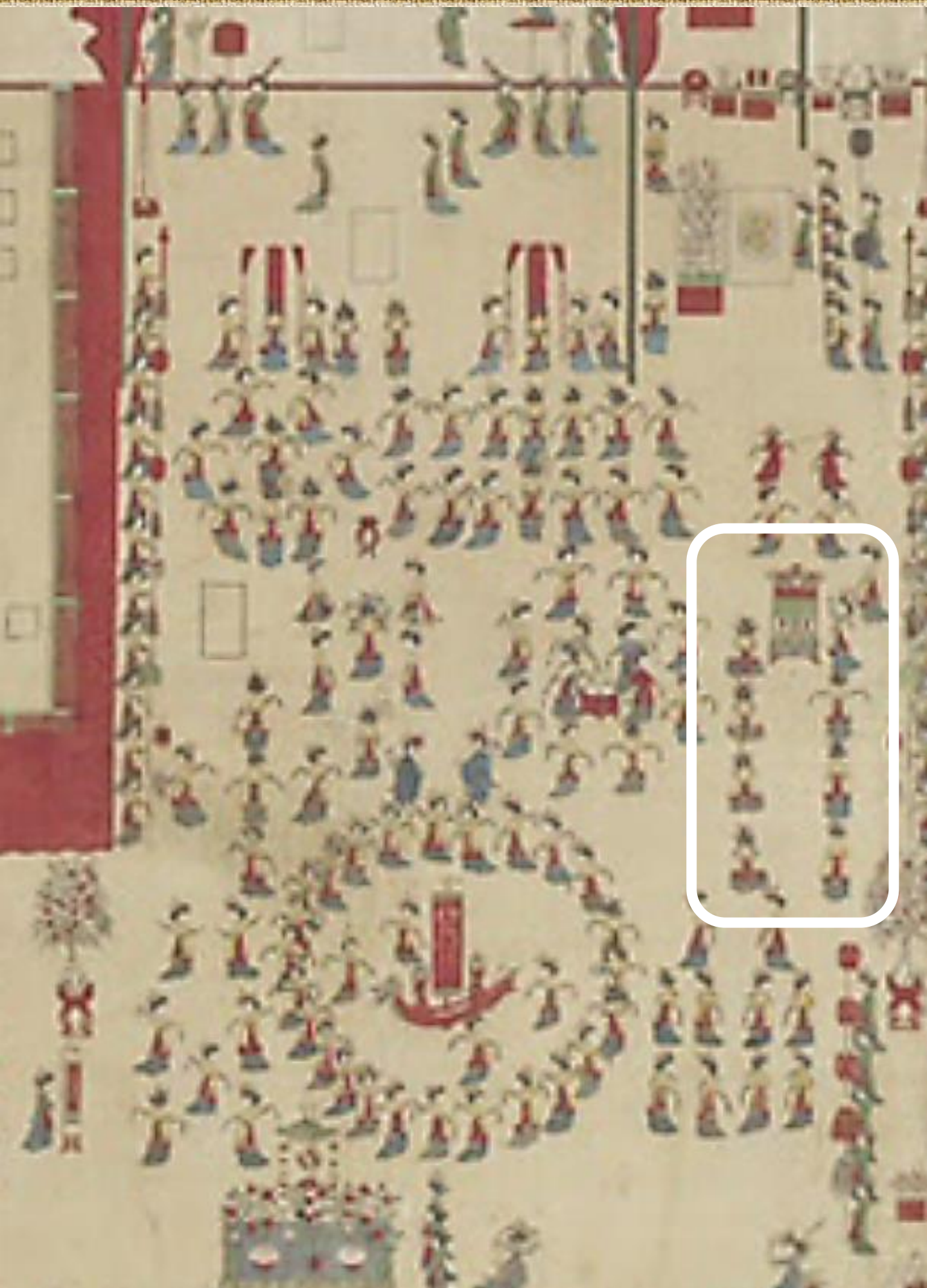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抛毬樂



포구락

순조기축진찬도병, 1829



포구락

순조기축진찬의궤, 1829

拋毬樂



포구락

헌종무신진찬도병, 1848



쌍포구락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포구락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 평양감사향연도 부벽루연회도, 김홍도, 국립중앙박물관

평양감사향연도

平安監司饗宴圖

부벽루연회도 浮碧樓宴會圖

김홍도(1745~?)



포구락 拋毬樂

拋 던질 포
毬 공 구
樂 즐길 락

분위기 전환

즐거운 잔치

몽계필담 夢溪筆談

심괄(沈括), 1086-1093

夢溪筆談卷第一

故事一

沈括 存中

上親郊廟冊文皆曰恭薦歲事先景靈宮謂之朝獻次太廟謂之朝饗末乃有事于南郊予集郊式時曾預計論常疑其次序若先爲尊則郊不應在廟後若後爲尊則景靈宮不應在太廟之先求其所從來蓋有所因按唐故事凡有事于上帝則百神皆

포구락

몽계필담, 1086-1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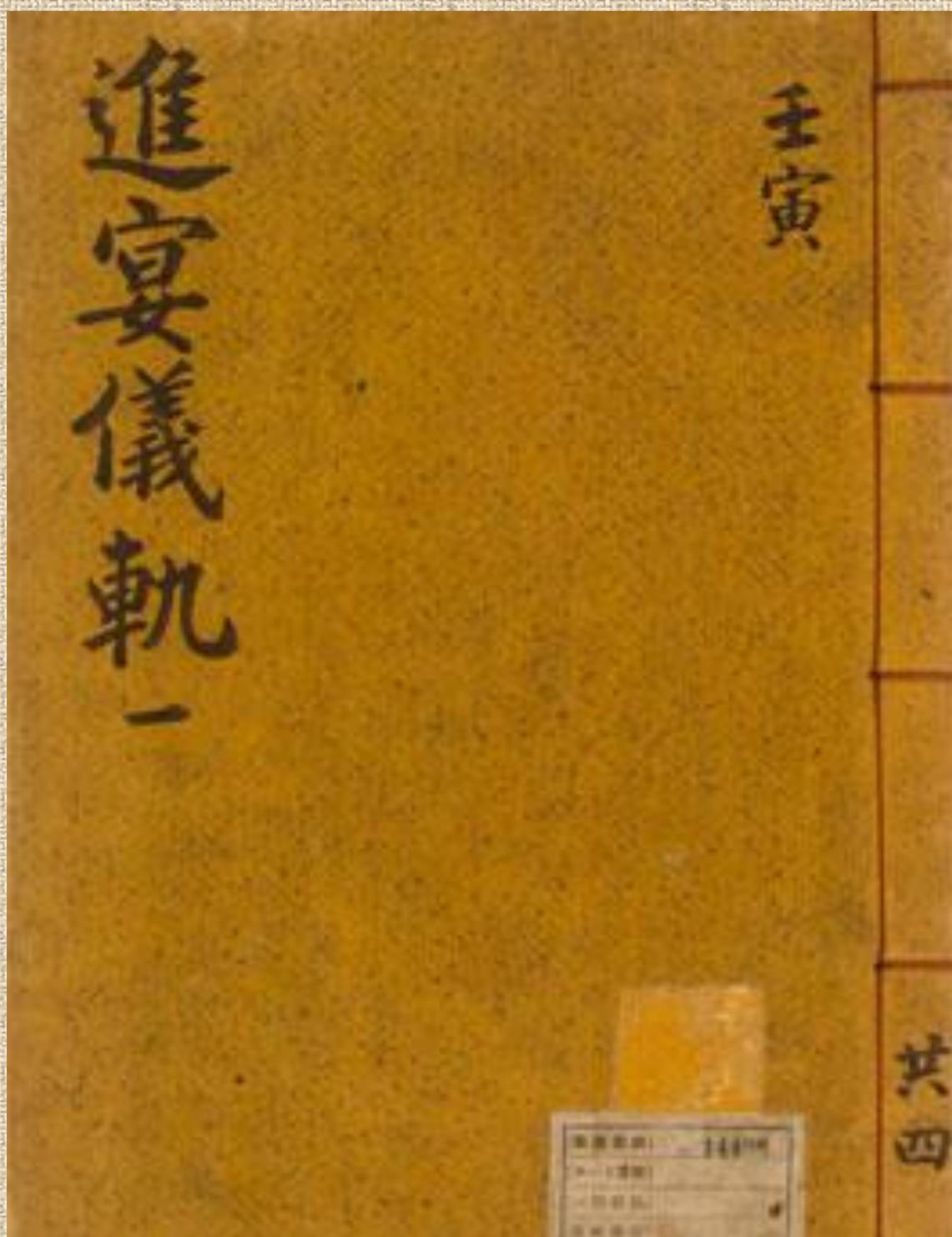
해주(海州)의 사인(士人)
이신언(李愼言)이 꿈에 어느
곳에 이르러 수전(水殿)
안에서 궁녀들이 공놀이하는
것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산양(山陽)의 채순(蔡純)이
이에 대한 전(傳)을 지어서 이
일을 서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자세하다.



고종임인진연의궤

高宗壬寅進宴儀軌, 1902



抛毬樂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抛毬樂形。中除後隊隨前隊舞退。次次進舞。○舞童呈才同。

翠幕華筵耀瑞日。綺羅三隊好新粧。外宴時。以出羣才技各爭長。改書進。○各隊并唱。五

雲樓閣間仙樂。百寶闌干拂霓裳。第一隊左。右并唱。錦帳初開彩袖

色。玉簾且捲繡毬香。第二隊左。右并唱。花間簫鼓莫催曲。只恐花身

客舞易。第三隊左。

抛毬樂

宋時女子隊舞。有抛毬樂隊。歷朝以端午節爲抛毬樂。女妓當殿唱詞。我朝宴禮亦倣用之。用朱漆木作毬門。畫龍鳳飾以紋。綴門上開一孔。爲風流眼。以彩毬仰拋。○女妓二人奉竹竿子。前進相向。一人奉花。立於毬門之東。一人奉筆。立於毬門之西。十二人分六隊。前隊

進宴儀九。壬寅。一樂章

三十六

二人各執彩毬。舞而仰拋。餘隊隨前隊舞退。次次進舞。○舞童呈才同。而十八人分五隊。竹竿子不呈口號。各隊唱詞。多不合於外宴。故亦爲不呈。

唯樂堅將。麗景。技童部列。香階。爭呈。掉約。之姿。共獻

蹁躑之舞。冀容入隊。以樂以娛。竹竿子進口號。翡翠簾前拋繡毬。窄

羅衫子緊裹頭。玉纖外宴時。以輕纖改書進。高指紅絲網。贏取筵前第

一籌。第一隊左。右并唱。翠幕華筵拂霓裳。綺羅六隊外宴時。以嬋妍羣隊改書進。簇宮

商。驀然高柳鶯梭擲。髻上新花惹御香。翌日會酌時。以共拖香改書進。○第二隊左右

并分。外宴時。以冠奇。堯。利。兩。行。次。聲。一。二。外宴時。以爭。量。雲。

포구락 拋毬樂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송나라 때 여자대무(女子隊舞)
중에 포구락대(拋毬樂隊)가
있었고, 고려조에 단오절에는
포구락을 하였는데,
여기(女妓)가 전(殿) 앞에
나와 가사를 불렀다. 우리
조정의 연례(宴禮)에서도
모방하여 사용하였다.

고려사 高麗史

1392-1451



1

조영이 포구락을 연주하다

고려사 악지

姬王太子加元服賓就幕歇引賓主去靴笏
出就位並奏迎仙樂 文宗二十七年二月
乙亥教坊奏女弟子眞卿等十三人所傳踏
沙行歌舞請用於燃燈會制從之十一月辛
亥設八關會御神鳳樓觀樂教坊女弟子楚
英奏新傳拋毬樂九張機別伎拋毬樂弟子
十三人九張機弟子十人三十一年二月乙
未燃燈御重光殿觀樂教坊女弟子楚英奏
玉母隊歌舞一隊五十五人舞成四字或君

초영이 포구락을 연주하다

고려사 악지

十一月辛亥, 設八關會,
御神鳳樓觀樂,
敎坊女弟子楚英,
奏新傳拋毬樂·九張機別伎.

초영이 포구락을 연주하다

고려사 악지

〈문종 27년(1073)〉 11월

신해(辛亥), 팔관회(八關會)를
여니 국왕이 신봉루(神鳳樓)에
행차하여 음악을 관람하였는데,
교방(敎坊)의 여제자(女弟子)

초영(楚英)이 새로 전래한

「포구악(抛毬樂)」과

「구장기별기(九張機別伎)」를

연주하였다.

포구문 拋毬門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붉은 칠을 한 나무로
구문(毬門)을 만들고 용과
봉황을 그리고 문양 있는
비단으로 장식한다. 문 위에
구멍 하나를 내어
풍류안(風流眼)으로 삼아
거기에다 채구(彩毬)를
던져 넣는다.

포구문 抛毬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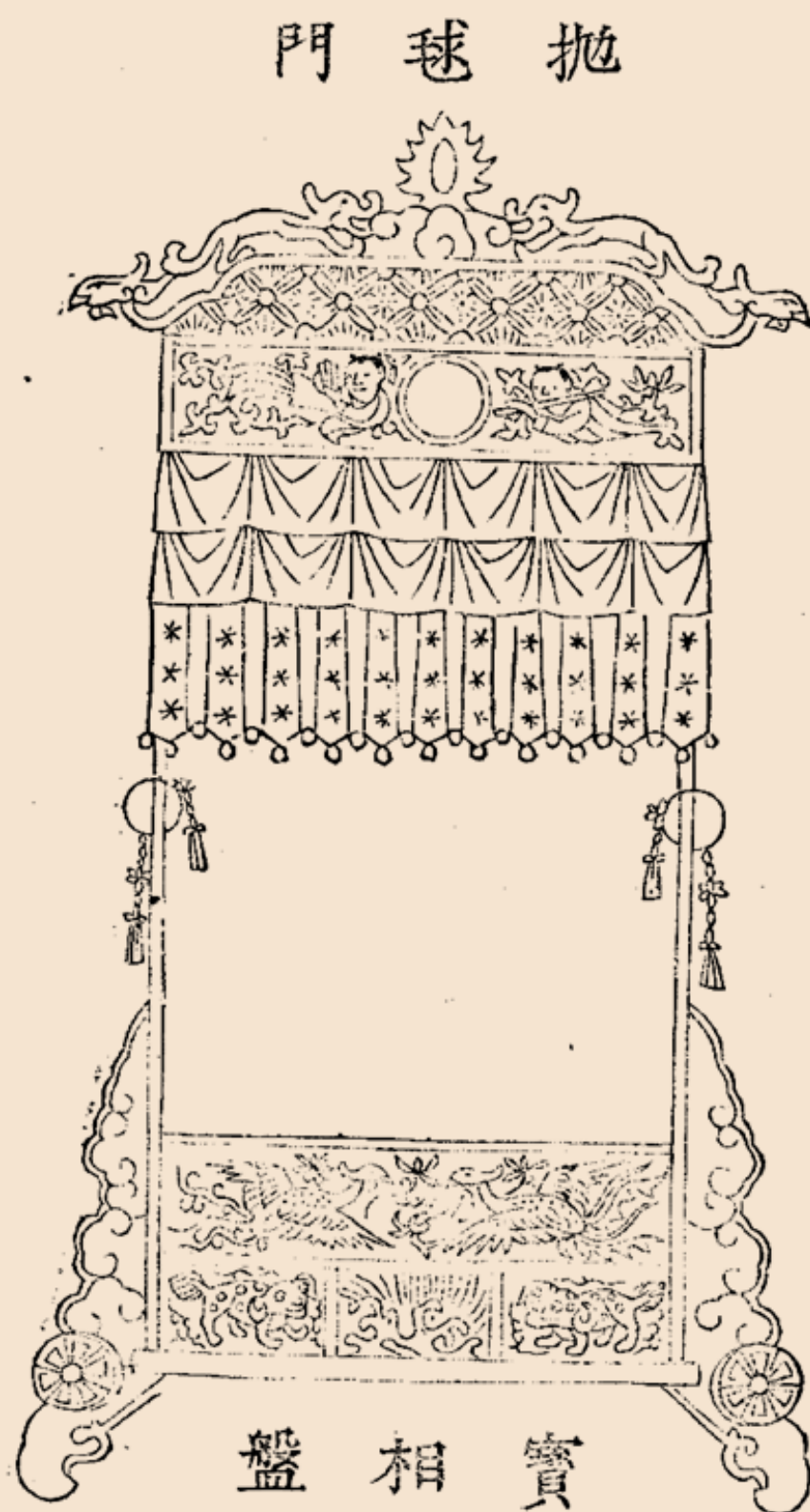
악학궤범

木柄漆朱上施曲鐵懸蓋於其端頂子以銀爲之用黃色段作
三幡並印金鳳金花紋內垂色絲結二四結具蓋同稱每緝
抛毬門附彩毬二



포구문 拋毬門

순조기축진찬의궤, 1829



채구 彩毬

악학궤범

彩毬

圓七寸二分
紐二寸



垂纓一邊長九寸六分

造毬門之制下設橫木兩頭有葵花圖
兩邊各立薄板刻雲紋下橫木之上又
兩間下板分三間中刻靈芝草左右刻

포구락 拋毬樂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여기 2인이 죽간자를 받들고
앞으로 나아가 마주 보고 선다.
1인은 꽃을 받들고 구문(毬門)
동편에 서고 1인은 붓을 받들고
구문 서편에 선다. 12인이 6대로
나뉘는데, 전대(前隊) 2인은 각자
채구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던져
넣는다. 나머지 대는 전대를 따라
춤을 추며 물러나 차례로 나아가
춤을 춘다.

포구락



허백당집 虛白堂集

성현(成俔, 1439-1504)

虛白堂集 三

奎
3428
28

奎京圖書	
分類記號	
圖書編號	7060
一書冊數	8
內附書號	3
서울대학교	

共八

포구락

허백당집, 성현(1439-1504)

朱門風動捲輕幃
作隊雙雙弄彩毬
翠袖乍彎隨地進
螺鬟頻整向空投
俯擎白苧初猶喜
仰點玄鴉却自羞
破費不須三百萬
承恩一束足纏頭

포구락

허백당집, 성현(1439-1504)

붉은 문에 바람 불어 깃발이 날리는데
쌍쌍이 대오 지어 채색 공을 갖고 노니
비취 소매 살짝 굽혀 땅을 따라

나아와서

나환 자주 만지면서 공중 향해 던지누나
몸을 숙여 흰 소매로 상 받을 땐

기쁘지만

얼굴에다 먹물 찍는 벌 받는 건

부끄러워

삼백만의 비용까진 들어갈 게 없으니
승은의 값 일 속이면 전두로 충분하리

독개원천보유사

讀開元天寶遺事

소식(蘇軾, 1037-1101)의 시

破費八姨三百萬

大唐天子要纏頭

팔이가 삼백만의 비용을

사용하니,

당나라의 천자가 전두

요구해서라네.

羯鼓楼上话羯鼓， 唐玄宗的音乐造诣竟如此之深



식별 point

포구문

포구락

원행정리의궤도, 1795



포구락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헌선도 獻仙桃

몽금척 夢金尺

수명명하황은 受明命荷皇恩

포구락 拋毬樂

무고 舞鼓

아박 牙拍

향발 響鉢

학무 鶴舞

연화대 蓮花臺

수연장 壽延長

처용무 處容舞

침수무 尖袖舞

검무 劍舞

선유락 船遊樂

헌선도 獻仙桃

몽금척 夢金尺

수명명하황은 受明命荷皇恩

포구락 拋毬樂

무고 舞鼓

아박 牙拍

향발 響鉢

학무 鶴舞

연화대 蓮花臺

수연장 壽延長

처용무 處容舞

침수무 尖袖舞

검무 劍舞

선유락 船遊樂

episode #3

진찬 춤 #1-4



조선 **왕** 들은

어떤 **춤** 을

즐겼을까?

혜경궁 홍씨
환갑잔치에서
나오는

14가지 춤